

For 2024 피렐 파이널 |주차 해설지

1주차 DAY 1

2021.06 [16~21] 인문 '과거제의 명암' ☆☆

(가) 1문단

①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②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① #화제 제시 #정의 제시 #재진술

'과거제'에 대한 지문입니다. 이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고 해요. '과거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나아가 이러한 제도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간단하게 고덕이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② #재진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추천'이 아닌 '시험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 '세습적 권리'가 아닌 '능력'이 중요하기에 '합리적'이라는 1번 문장의 내용과 똑같죠? '능력'과 '합리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과거제'에 대해 설명하려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제를 잡아놓은 상태로 계속 읽어봅시다.

(가) 2문단

①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②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③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①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카테고리 나누기

이렇게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거제'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말은 1문단에 나왔던 '능력주의'와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제'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시켰다고 해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사회적'인 지위 획득의 '유동성'을 높였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기저에는 '공정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제부터 '공정성=사회적 유동성 증대'라는 재진술을 잡아놓고 읽을 수 있겠죠?

나아가, '과거제'의 여러 장점 중 1문단에서는 '능력주의=합리성'을, 2문단에서는 '공정성=사회적 유동성 증대'를 들고 있음을 파악하며 카테고리를 나눠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모든 내용을 전부 '같은 말'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체감되는 정보량을 확 줄일 수 있을 것이에요.

②~③ #재진술

물론 응시 자격에 제한은 있었지만, '과거제'는 나름대로 '공정'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정성'이라는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익명성의 확보'라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시험 응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합불이 갈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공정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이로부터 '공정성=사회적 유동성 증대=익명성의 확보'라는 재진술을 체크할 수 있겠죠? 물론 엄밀하게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의미상 같은 말'임을 생각하며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합리성'에 이어 '공정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유동성'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공정성'과 사실상 '같은 말'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가) 3문단

①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②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③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④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①~④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계속해서 과거제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성' 혹은 '공정성'과는 확실하게 다른 맥락의 내용이에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겠죠?

이러한 '사회적 효과'의 하나는 '교육의 확대·지식의 보급'입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 하니 당연한 말이겠네요. 나아가 이로부터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는 것, 또한 학습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공유'를 이끌어냈다는 것 등 모두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4번 문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제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람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역시 '사회적 효과'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되었든 과거제를 응시할 만큼의 인재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한 효과를 낳았으니까요. 또한 이는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납득은 모두 '사회적 효과'라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정보 처리를 했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의 목적이 이렇게 정보량을 줄이고 더 많은 정보를 납득하는 데 있다는 점,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사회적 효과’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읽으면 3문단의 모든 정보가 납득됩니다. 납득이 되면? 머릿속에 ‘기억’의 형태로 남기 때문에 선지 판단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가) 4문단

①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②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③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이번에는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3문단에서도 이야기했던 ‘사회적 효과’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 ‘통치의 안정성’ 등 역시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라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3문단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효과’를, 4문단에서는 ‘정치’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겠죠?

(가) 5문단

①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②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③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④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①~④ #화제의 흐름 #재진술 #카테고리 나누기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거제는 유럽에 전해지기도 했다고 해요. 어떤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과거제)를 정치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했을 정도로 말이죠. 이에 실제로 관료 선발에 과거제처럼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제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국내적 영향 / 국외적 영향’과 같은 방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다면 더욱 완벽하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과거제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지문이었습니.

하이라이트 문장

③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체제’가 곧 ‘과거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재진술은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겠죠?

(나) 1문단

①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②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③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④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① #정의 제시 #주장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유형원’이라는 사람의 ‘공거제 구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형원’은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을 펼친 사람이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과거제’가 떠오르면서, 과거제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주시야겠죠?

‘유형원’이 주장한 ‘공거제 구상’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예요. 이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이 곧 ‘과거제’를 의미한다는 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가)에 따르면 좋게만 보였던 과거제에도 약점이 있나보네요. 이 약점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면서 읽는 게 좋겠죠?

또 하나는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분적 세습’은 과거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세습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둘 모두를 고려한 것이 바로 ‘공거제 구상’이네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제의 약점’과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읽어나갈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②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이러한 ‘공거제 구상’은 조선 사람인 ‘유형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논의가 중국에서도 있었다고 하네요. ‘조선/중국’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눠 놓고, 계속해서 ‘세습’이라는 포인트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번 문장을 바탕으로 ‘과거제↔세습’의 비교 포인트를 잡았다면,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도입하려는 것이 ‘과거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같은 의미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선/중국’ 카테고리 모두 ‘과거제의 약점 극복’이라는 하나의 맥락 속에 있는 정보였던 것이죠.

③~④ #사례-원리 연결 #주장 제시

이를 ‘고염무’와 ‘황중희’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제의 약점 극복’이라는 원리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세습’의 길을 열어 둔 ‘고염무’의 주장이나 ‘벽소’와 같은 제도를 이야기한 ‘황중희’의 주장을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기는 힘든 정보이므로 ‘고염무’, ‘황중희’와 같은 부분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지 판단할 때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하이라이트 문장

②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제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중국’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문장에 의하면 이는 ‘과거제의 약점 극복’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인문 지문은 결국 다 같은 말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나) 2문단

①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②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③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④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⑤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①~③ #화제의 흐름 #카테고리 나누기

이처럼 ‘과거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개혁론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논의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거제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3번 문장에서는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놓고 납득할 준비를 하면 되겠죠?

④~⑤ #재진술

과거제의 ‘시험 방식’을 생각해보면, ‘형식적 학습’과 인재들의 ‘재능 낭비’, ‘인성이나 실무 능력 평가 불가’ 등의 ‘부작용’을 모두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제를 개혁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카테고리를 만들어두면, 별개의 것으로만 보이던 정보들을 쉽게 납득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이번에도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문장이네요. 뒤에 나오는 정보들을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이라는 내용으로 모아 주며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나) 3문단

①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②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료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③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④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⑤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었다. ⑥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과거제는 ‘시험 방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새롭게 카테고리를 나눠주면서, 뒤의 정보들을 납득할 준비를 해야겠죠?

②~④ #재진술

먼저 ‘능력주의적’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납득했던 ‘과거제’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것이 시험뿐 아니라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고 해요. 임용된 후에 ‘능력’을 뽐내는 것이 평가에 유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관리들은 세습적이지도 않았고, 몇 년의 임기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크게 상관도 없는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가시적·단기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정책만을 펼치게 되었겠죠? 자신의 ‘능력’을 뽐내야 한다는 ‘개인적 동기’가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공성’과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⑤~⑥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이 외에 ‘공동체 의식의 약화’도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는 ‘관리들의 활동’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역시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능력주의적 태도’와는 별개의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리들은 세습적이지도 않고 임기에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도 낮고 ‘능력’을 보여줘서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네요.

결국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은 ‘가시적·단기적 성과’만을 추구하고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도 약한 상태로 ‘활동’했다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리들의 활동’이라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이번에도 이쁘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 모든 정보는 여기로 모일 겁니다.

(나) 4문단

①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②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③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①~③ #재진술

과거제가 지속되는 내내 ‘과거제 이전’, 즉 ‘세습’과 같은 봉건적 요소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과거제로는 ‘소속감 · 충성심’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죠? 결국 과거제에 대한 개혁론들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세습 정치’와 같은 ‘역사적 경험’과 ‘사상적 자원’을 활용한 보완이었다며 의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제의 장단점 모두 깊게 납득한 채로 문제를 풀러 가면 되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2%	6%	5%	17%	10%

16.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거제의 사회적 장단점이 화제였지.
해설	(가)와 (나)는 각각 ‘과거제’라는 제도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과적으로’라는 말에서 멈칫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과거제가 어떤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와 같은 흐름으로 정보가 제시되고 있으니 충분히 맞다고 할 수 있겠어요. ‘원인’과 ‘결과’의 느낌이 잘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론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해설	과거제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과거제를 분석하는 ‘이론’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람 이름은 오히려 (나)에 나왔었지.
해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가)에서는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처럼 포괄적으로 제시했지만, (나)에서는 ‘유형원, 고영무, 황종희’ 같은 구체적인 사상가들을 언급하며 ‘과거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냈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에서는 비판 근거만 나열했지.
해설	(가)에서는 선호 근거만을, (나)에서는 비판 근거만을 나열했습니다. 화제를 거스르는 선지네요.

⑤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에 시간적 흐름은 없었는데?
해설	‘통시적/공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던 학생들이 많이 골랐던 선지였습니다. ‘통시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 ‘공시적’은 시간의 흐름 없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는 아예 시간의 흐름이 제시되지 않았죠? ‘천 년’ 같은 것은 그냥 ‘과거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천 년 간 일어난 일을 서술해야 ‘통시적 서술’이 됩니다. 나아가 (나)에서 ‘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모두 과거제를 개혁하고자 했을 뿐이었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0%	5%	6%	55%	4%

1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명시적 근거	(가) 5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럽에도 도입되었다고 했지.
해설	‘국외적 영향’이라는 카테고리를 잡고 납득하며 읽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이 과거제를 높게 평가했고, 실제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을 도입하기도 했었죠. 이 정도의 정보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2번 문장,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들이었지.
해설	두 선지의 내용 모두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라는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납득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선지들을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워내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시간을 아끼는 것이 바로 국어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명시적 근거	(가) 1문단 1번~2번 문장, (나)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되는 건 세습적인 건데?
해설	(가)의 1문단을 읽으면서 과거제가 철저한 '능력주의적' 시험이자 '세습'과 반대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납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 되는 것은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나아가 과거제를 개혁하고자 했던 '황중희'가 주장한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기에, 확실하게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의 '정답 선지'에서 (나)의 내용을 이용한 것은, (가)와 (나)를 마치 한 지문처럼 유기적으로 읽은 뒤에 문제를 풀라는 평가원의 깊은 뜻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하나의 지문이라는 것,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합니다.

-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명시적 근거	(가)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럽 사상가들이 그랬지.
해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의 주장 그 자체입니다. '국외적 영향'이라는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납득했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9%	55%	11%	8%	7%

18. (나)를 참고할 때, ㉠과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 ㉠과 같은 주장은 '과거제'에 '세습'과 같은 '봉건적 요소'를 통해 보완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묻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과거제의 문제점!' 이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갔다면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예요. '시험 방식'과 '관리들의 활동'이라는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납득했던 내용들이죠?

- 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3번 문장,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관리들의 활동이 이런 점에서 문제였지.
해설	'관리들의 활동' 카테고리를 요약한 것과 같은 선지네요.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소속감이 낮아지게 되고, 이것이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낳는 문제가 있었죠.

- ②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왜 공공성과 상충해.
해설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은 모두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들이 '세습'과 같은 '봉건적 요소'를 지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나아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것은 '능력'을 인정받아 출세하고자 했던 이들의 '개인적 동기'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쪼잔한 내용일치가 아니라 지문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 ③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출세 지향적이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지.
해설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출세 지향적'이었습니다. 즉, 출세하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가 매우 강했죠. 이에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은 당연히 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적 동기’가 지문 속 ‘출세 지향적’을 재진술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	---

- ④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⑤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료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관료들의 활동이 이런 점에서 문제였지.
해설	두 선지 모두 ‘관료들의 활동’ 카테고리 바탕으로 확실하게 납득하고 있는 과거제의 부작용들입니다. ‘출세 지향적’, ‘단기적인 성과’(=근시안적인 결과), ‘능력주의적’, ‘가시적인 성과’ 모두 낱설지 않은 내용들이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5%	7%	73%	4%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시험 과정에서 ㉠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 ‘익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에 따르면 이는 세습적 지위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성’ 그 자체이고, (나)에 따르면 이는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한 것이네요. 이 정도의 비교 포인트는 확실하게 잡아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 ① ㉠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2번~3번 문장, (나)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익명성이랑 응시 기회, 결과주의가 무슨 상관이야.
해설	‘익명성’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지문에서도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었음을 명시했구요. 애초에 ‘익명성’과 ‘응시 기회’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또한 ‘결과주의’와 ‘익명성’ 역시 아무런 관련이 없죠? ‘익명성에 대한 회의’는 ‘결과주의’가 아닌 ‘인성 및 실무 능력’과 관련된 것이네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듯’ 선지가 아니라, ‘맞는’ 선지를 골라야 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② ㉠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3번 문장, (나)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게 익명성이랑 무슨 상관이야;;
해설	왕조의 교체와 같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었습니다. 이는 ‘익명성’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내용이었죠? 나아가 ㉡은 과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는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지 않는 제도였어요. 따라서 ‘익명성에 대한 회의’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건 완전히 헛소리네요.

- ③ ㉠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3번 문장, (나)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것도 익명성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네.
해설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 같은 것도 모두 ‘익명성’과는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 ④ ㉠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은 관리 선발 시 됴됨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3번 문장, (나)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익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강화했지만, 누구의 답안인지 알 수 없기에 인성 및 됴됨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의적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발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 그 자체네요.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 묻는 문제는 답을 주관식으로 생각하고 풀어주셔야 합니다.

- ⑤ ㉠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3번 문장, (나)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것도 익명성이랑 무관하지.
해설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 확대’는 과거제의 ‘학습 내용’이 낳은 영향이었죠? ‘익명성’과는 상관없어요. 또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은 ‘인성 및 실무 능력을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구요. 애초에 우리가 미리 생각한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8%	13%	8%	68%

20.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 **갑**: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한 과거제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의 입장에 딱 들어맞네요.

- **을**: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 '유교적 가치'라는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지만,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만 매달리느라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에서는 (나)의 내용과 맞닿아 있네요.

- **병**: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이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과거제의 '시험 방식'은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나)와 비슷한 입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편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은 (가)의 주장과 같네요.

- ①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가)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능력주의=공정성=개방성=사회적 유동성 증가'라는 재진술을 납득했다면 너무나 쉽게 지워낼 수 있습니다. <보기>를 정리하면서 미리 생각한 내용이 있어야 해요!

- ②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역시 미리 생각한 내용이었어야 합니다. 인재들이 장기간 수험 생활에 매달린 이유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③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가)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교 위주로 도덕적 가치 기준이 공유되었지.
해설	과거제는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도덕적 가치 기준의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을'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 ④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형식적 학습은 시험 방식 카테고리였지.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형식적 학습'을 유발한다는 것은 과거제의 '시험 방식'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카테고리 속의 정보였죠?

- ⑤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거제는 실무 능력을 볼 수 없지.
해설	과거제는 '실무 능력'과 '인성'을 볼 수 없기에 문제라는 것, (나)에서 주장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 과거제는 고전과 유교 경전에 대한 학습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대전제를 위반한 선지이기 때문에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	9%	2%	85%	3%

21.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④

- ① ㉠: 그가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다.
- ② ㉡: 우리는 그 당시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 ③ ㉢: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 있었다.
- ④ ㉣: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 ⑤ ㉤: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카테고리화의 정석과도 같은 지문이었습니다. 화제를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개별 정보를 납득해가는 태도를 배우기에 정말 좋은 지문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납득한 후에 선지를 빠르게 지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하는 경지임을 생각하면서 복습해봅시다.

1주차 DAY 1

2018.09 [23~26] 극문학 '불모지' ☆☆

<보기> 독해

<보기>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발견'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니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문 내용 자체를 이해해 봅시다.

지문 독해

최 노인 :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

'최 노인'의 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멧없는 것' 때문에 자신이 심어 놓은 '화초'나 '고추 모'가 자라지 않는다며 불평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이때의 불평은 단순히 '멧없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에 대한 불만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 노인'은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읽어 보도록 합시다.

이때 **경재** <제복을 차려 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재 : 원 아버지두……

최 노인 : 이놈아 뭐가 우스워?

경재 :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짐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에헴!

이때 '최 노인'의 아들로 보이는 '경재'는 '최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아래의 대사들을 보니, '최 노인'의 불만은 '옛날'의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경재'는 이렇게 과거에 갇혀 있는 아버지가 우스워 보이는 것이죠. <> 표시한 외양 묘사를 보면 '경재'가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배운 사람이면 역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러한 '경재'의 입장에서는, '최 노인'이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겠죠?

(중략)

경수 : 여보 영감님! 여긴 중로 환복관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이백오십만 환이라구요?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중략) 이후입니다. 이번엔 '경수'가 나왔네요. 이름을 보니 '경재'와 형



제 관계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경수’는 이곳이 ‘종로 한복판’에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겨우 ‘이백오십만 환’밖에 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백오십만 환’의 가치를 정확히는 몰라도 ‘종로 한복판’에 있는 우리집의 가치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날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공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덕방 : 뭐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예기 버릇없는 놈 같은 니라구!

경수 : 아니 이 영감님이……

복덕방 : 그래 이놈아 너는 애비도 에미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구? 이 천하에.

최 노인 : 여보 김 첩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할 게 뭐요?

복덕방 : 그래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무친한 외도토린 줄 아느냐? 이놈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육 남매여!

경수 :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깐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복덕방 : 음 이놈이 한낮부터 술 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 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 노인 : 김 첩지! 글쎄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원!

복덕방 : 그러고 이백오십만 환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놈아 누군 돈이 바람 맞은 대추알이라던? 응? 그것도 잘 생각해서 야! 음!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 노인 : 글쎄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복덕방 : 난 그만 가 보겠소이다. 이런 일도 기분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끌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에잇.

최 노인 : 아 김 첩지! 김 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어머니 : 네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이 말을 들은 ‘복덕방’도 화가 납니다. 갑자기 ‘공동묘지’ 이야기를 하면서 속을 긁으니, 당연히 화가 나겠죠. ‘경수’와 실전을 벌이는데, ‘최 노인’과 ‘어머니’는 이 사이에서 ‘복덕방’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최 노인’과 ‘어머니’는 ‘이백오십만 환’에 집을 팔고 싶은 생각이겠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말이예요.

아무튼 화가 난 ‘복덕방’은 가 버리고, ‘경수’는 궁시령대고, ‘어머니’는 그런 ‘경수’를 나무라고, ‘최 노인’은 ‘복덕방’을 쫓아 갑니다. 각자의 행동들에 모두 공감할 수 있겠죠?

이때 최 노인 쉼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더 낸다.

최 노인 : 이놈아!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

경수 :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뭣 하려 복덕방은……

최 노인 : 저런 쓸개 빠진 녀석 왔나! 아니 내가 뭣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응? 옳아 내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응?

어머니 :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환이란 무슨 애깁니까?

최 노인 : 네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 지원하겠니?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

경수 : 예? 전세라구요?

(어머니와 **경운**은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그런데 ‘최 노인’은 성을 냅니다. 집을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세로 내놓는 것이었어요. 전세니까 매매가보다는 싼 가격이었을 것이고, 이에 ‘이백오십만 환’이라는, ‘경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왔던 것이네요. 이제야 상황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경수’가 되묻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와 ‘경운’도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일단 ‘경운’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다는 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행위는 ‘뭔 소리야?’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앞서 ‘복덕방’을 달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백오십만 환’이라는 금액에 동의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버릇없는 아들을 나무라는 것이었네요. 결국 ‘최 노인’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최 노인 :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차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프나?

경수 :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예요! 저는……

최 노인 : 아니면 껌질이나?

어머니 :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뭣 하시게요?

최 노인 : 글쎄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드라 ‘샤플보드’이라든가……

경운 : ‘샤플보드’ 말씀이에요?

최 노인 : 그래 ‘샤플보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가에 그걸 해 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얘기가 거이 익어 가는 판인데 글쎄 다 되어 간 음식에 코 빠치기로 저 녀석아……

어머니 :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 노인 :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 노인 : 뭐가 괜히야?

경운 :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

최 노인 : 흥! 너희들은 모두 한숨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어머니 :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 노인 :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혼한 햇벌도 안 드는 집이 뭣이 된단 말이야! 뭣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뽀아 헤친다.)

어머니 : (땀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써도 말야!

- 차범석, 「불모지」 -

* 샤플보드(shuffleboard): 오락의 한 종류.

‘최 노인’은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놓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가족들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이 거지꼴이 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냐며 화를 냅니다. ‘최 노인’ 나름대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겠죠. 이러한 ‘최 노인’의 반응에 ‘경수’는 당황하고, ‘최 노인’은 실없는 농담이

나 하면서 비아냥됩니다. 서운함이 극에 달한 모습이지요?

어쨌든, ‘최 노인’은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샤뽕오드’를 차리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해가 풀린 가족들은 괜히 난리 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 노인’은 모든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가족들과 상의 없이 전세 놓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 집을 파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 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머니’의 ‘다만……’도 무시할 정도로 말이죠.

화가 난 ‘최 노인’은 ‘화초밭’으로 나가면서 울분을 토하고, 그러한 모습을 ‘어머니’가 말리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행동 및 심리의 근거를 생각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3%	17%	4%	13%	53%

23.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①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언어유희를 하는데 긴장이 왜 고조되냐.
해설	일단 ‘아니면 겁질이나?’와 같은 표현에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유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긴장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예요. ‘아니면 겁질이나?’ 부분에서도, 저 말을 통해 ‘경수’와 ‘최 노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기보다는 ‘어머니’가 화제를 전환하게 되는 등 약간이나마 긴장 정도가 가라앉는 것을 알 수 있죠. 애초에 이 선지는 선지 자체로 틀린 것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과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굳이 언어유희를 사용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② 장면의 전환을 통해 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장면 전환이 어떻게 내면을 부각시켜.
해설	‘장면의 전환’의 경우, 애매하지만 억지로라도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복덕방vs경수’의 구도에서 ‘최 노인vs가족들’의 구도로 무대 위 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장면의 전환’을 허용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면의 전환’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부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만약 위에서 나타난 ‘장면의 전환’을 바탕으로 각 인물의 내면을 부각했다면, ‘최 노인’과 ‘경재’, ‘어머니’ 등 두 장면 모두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내면이 ‘장면 전환’으로 인해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내면은 각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사건들의 진행 속에서 드러날 뿐, ‘장면의 전환’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결국, ‘통해’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야 하는 선지였습니다. 문학에서 고난도 문항을 만드는 방식 중의 하나이니, 꼭 알아 두도록 해요.
--	--

③ 인물들의 복장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제복이랑 심리랑은 상관 없지.
해설	인물들의 ‘복장’은 ‘경제’의 ‘제복’ 말고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의 심리를 드러내지는 않았죠? 그저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라는, ‘경제’의 ‘성격’을 나타내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④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격 변화는 없지.
해설	인물의 ‘성격 변화’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복덕방’이나 ‘최 노인’이 등퇴장할 때마다 성격이 바뀐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성격 변화’가 맞는 말이 되는 건 매우 어렵다고 했어요!

⑤ 실제 지명의 노출을 통해 극중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종로 한복판!
해설	(중략) 직후 ‘경수’에게 공감하는 과정에서, ‘종로 한복판’이라는, 서울 핵심지에 있는 자기 집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화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종로 한복판’이라는 실제 지명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겠죠? 이러한 실제 지명을 노출했으니, 극중 상황에 ‘사실감’이 부여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5%	3%	88%	2%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① ㉠: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최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최 노인 : (중략) ...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 다! ㉠ 말세야 말세!

(중략)

최 노인 :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최 노인이 불만인 건 옛날같이 없다는 것이었지.
해설	'최 노인'은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그 이유가 '옛날'의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 즉 주변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했습니다. '공감'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바로 허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선지네요.

② ㉡: '경재'의 말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경재 : (중략) ... ㉡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웅변 연사처럼 말하면 주목하게 되지.
해설	'경재'는 자신의 생각을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웅변 연사'는 청중을 주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말을 할 테니, 이러한 흥을 내는 것은 '경재'의 말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

③ ㉢: 호칭을 달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 노인'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

최 노인 : 아 ㉢ 김 첩지! 김 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더 높여 불러서 마음을 돌리려고 한 거지.
해설	'김 첩지'보다는 '김 선생'이라는 호칭이 상대방을 더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 노인'은 '복덕방'과의 계약이 깨질 것이 두려워, 마음을 돌리려고 호칭을 높여 불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선지는 가볍게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 두 인물이 '경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 (어머니와 경운은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수랑 다 같은 생각이지.
해설	'어머니'와 '경운'은 '경수'와 같은 생각으로 서로 얼굴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부분의 갈등 구도가 '최 노인vs가족들'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는 선지네요.

⑤ ㉤: '어머니'의 다급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어머니 : ㉤ (맨발로 뛰어내리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맨발이면 다급한 거지.
해설	'맨발'로 뛰어내릴 정도면 다급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3%	5%	87%	3%

25. <보기>와 ㉠~㉣을 관련지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발견'이란 인물이 극의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숨겨진 측면을 알아차리는 계기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발견'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 인물의 다른 면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이 변모되기도 한다.

- '발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견'은 여러 대상으로부터 사건의 숨겨진 측면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바꾸거나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변모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체크해 놓고 선지를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① '경재'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예전과 달라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드러내는군.

최 노인 : ㉠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㉔를 들은 '경수'는 '최 노인'의 불만의 원인을 발견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가볍게 허용할 수 있네요.

- ② '복덕방'은 ㉔를 통해 '경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과의 흥정을 중지하게 되는군.

경수 :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이백오십만 원이라구요? ㉔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복덕방에게 공감했던 흐름 그대로네.
해설	'복덕방'은 ㉔를 듣고 화가 나 '최 노인'과의 흥정을 중지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선지네요.

- ③ '경수'는 ㉔를 통해 '최 노인'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군.

최 노인 : 이눔아! ㉔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
경수 :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뭣 하러 복덕방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
해설	'경수'는 ㉔를 듣고, '최 노인'이 진짜 생각을 알게 되어 오해를 풀었습니다. 역시 공감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죠?

- ④ '최 노인'은 ㉔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군.

어머니 : ㉔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뭣 하시게요?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최 노인이 언제 계획을 변경했냐.
해설	'최 노인'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의 계획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렇다고 고집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최 노인'의 성격을 바탕으로 공감했던 기억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⑤ '최 노인'은 ㉔를 통해 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경운'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군.

경운 : ㉔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최 노인은 가족들한테 엄청 서운해했지.
해설	'최 노인'은 ㉔를 듣고 자신의 의도를 몰라 주는 가족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2%	3%	2%	90%

26. [화초밭]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최 노인 :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 라곤 하나도 없어! 혼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뭣이 된단 말이야! 뭣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뽀아 헤친다.)

- '화초밭'은 '최 노인'이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뛰쳐 나간 곳이었습 니다. 울분을 토하던 '최 노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선지를 판단해 보 도록 합니다.

- ①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희망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최 노인이 화를 푸는 장소인데?
해설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희망은 정말정말 억 지로나마 허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집을 팔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화초밭'은 이러한 희망 이 드러나는 장소가 아니라, '최 노인'의 울분이 드 러나는 장소였죠?

- ② 중심인물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소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슨 꿈을 포기했냐.
해설	'화초밭'은 집을 지키기 위해 간 곳도 아니고, '최 노 인'이 어떠한 꿈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허용할 수 없네요.



-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갈등이 왜 해소돼.
해설	말리는 '어머니'와 '화초밭'을 해치는 '최 노인'의 상반된 행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갈등을 고조시킬 뿐 해소하지는 않죠?

- ④ 중심인물이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책하는 장소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책한 게 아닌데?
해설	'최 노인'은 그냥 되는 일이 없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을 뿐, '자책'을 한 적은 없습니다.

- ⑤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허망해하는 중심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된 일이 없다는 점에서 '최 노인'은 울분을 토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드러내는 공간이 '화초밭'이었다는 것, 미리 생각한 내용이지요?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극문학 독해 : 소설과 마찬가지로,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대사 외 부분'에 주목하며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훨씬 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 ③ 선지에서 묻는 것 : 독서에서도 문학에서도, 선지 판단의 기본은 그 선지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다. 선지를 대충 판단하는 습관은 시험장에서 꽤나 치명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항상 '묻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지문 내용 총정리

인물들의 심리나 그에 따른 행동들이 꽤 투명하게 제시된 편이어서, 어렵지 않게 공감하며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조금 디테일한 판단을 요구하는 선지들이 나온 모습이지요? 고난도 문학 문제의 요소에는 '선지에서 묻는 것'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1주차 DAY 1

2017.09 [16~18] 고전시가 '방옹시여' ☆

<보기> 확인

—<보 기>—

「방옹시여」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희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궁실을 표현한 작품군, '남'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 등이 있다.

「은거 상황」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뻔한 지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보기>입니다. 자연을 좋아하면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전형적인 고전시가의 모습이죠? 이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 산촌에 눈이 오니가 돌길이 못쳤다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스리
→ 시비(사립문)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사람 누가 있나
밤동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괴 벗인가 호노라
→ 밤중에 뜨는 달이 그 벗인가 한다 <1수>

(나) 셋꺾래 기나 츠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 서까래 기나 자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 초가집 작다고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너 거신가 호노라
→ 산, 달이 다 내 것 같다 <8수>

(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피졌다
→ 한식 비 온 밤에 봄빛이 다 피졌다
무정(無情)흔 화류(花柳)도 때를 아라 피엿거든
→ 무정한 꽃도 때를 알아서 피었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고
→ 어찌자고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가 <17수>

(라) 어저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곳지 다 피엿다
→ 어젯밤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 연못가에 수정렴을 걸어 두고
눌 향한 김흔 시름을 못내 푸러 호노라
→ 누굴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풀어낼까 <18수>

(마) 창(窓)밧긔 위석버석 님이신가 이러 보니
→ 창밖에 바스락바스락 님인가 이렇게 보니까
혜란 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 혜란 혜경에 낙엽이 무슨 일이나
어즈버 유한호 간장(肝腸)이 다 끈칠까 호노라
→ 유한한 간장(창자)이 다 끊어질까 한다 <19수>
- 신희, 「방옹시여(放翁詩餘)」-

* 수간모옥: 방이 몇 칸 되지 않는 작은 초가.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 만산 나월: 산에 가득 자란 덩굴 풀에 비친 달.
- * 부용 당반: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가.
- * 혜란 혜경: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각 수의 종장만 봐도 주제 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가)와 (나)는 「자연 좋아!」라는 주제 의식을, (다)~(마)는 「임금님 그리워요ㅠ」라는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요? 주제 중심으로 지문의 내용을 대강 파악했으니, 바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4%	76%	11%	4%

16.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 다른 문제들처럼 지문 전체 내용의 특징을 묻는다면 거시적 차원의 정답 후보를 먼저 고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이 문제는 (가)~(마)로 나누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 하나씩 천천히 확인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①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물음도 답변도 없는데?
해설	대상에서 물음을 던진 적도 없고, 답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중장은 물음이 아니라 설의적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②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거가 없는데?
해설	(나)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과거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과거가 나타난 적도 없는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할 수는 없겠지요.

③ (다)에서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경후정 맞네.
해설	초장과 중장에서는 「한식 비 온 밤」의 풍경을 묘사했고, 종장에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간단하게 허용할 수 있네요.

- ④ (라)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감정 이입도, 심리적 변화도 없지.
해설	애초에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대상을 찾아 볼 수도 없고, '심리적 변화'는 더더욱 허용할 수 없죠? '심리적 변화'와 같은 강력한 변화가 나타났다면 분명히 체크를 했을 거예요.

- ⑤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점층적 나열은 너무 헛소리네.
해설	일단 대상을 의인화한 부분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점층적으로 나열'한다는 말을 허용하기도 어렵겠네요. 그냥 '님에 대한 그리움'이 야기한 착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5%	10%	75%	6%

17. <보기>의 ㉠, ㉡를 고려하여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공심
㉡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

- 이 작품의 두 주제 의식이죠? 가볍게 답을 골라 봅시다.

- ① (가)의 '눈'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은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단서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눈이랑 자발적 은거랑 도대체 뭘 상관이야.
해설	'눈'은 그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낼 뿐입니다. 단순한 배경일 뿐, '은거'가 자발적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단서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죠. 나아가 <보기>에 따르면 작가가 정계에서 밀린 뒤 은거했다고 했으니, 화자의 은거가 자발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② (나)의 '수간모옥'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에 있는데 왜 답답해.
해설	'수간모옥'이 ㉠와 연관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수간모옥'에 '만산 나월'이 모두 자신의 것으로 느껴진다면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답답한 심정'은 허용할 수 없기도 하고, 애초에 고전시가에서 자연에 있는데 답답하다고 하는 표현이 나타날 리가 없겠죠.

- ③ (나)의 '만산 나월'은 ㉡와 연관된 시어로,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게 하는 소재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만산 나월은 ㉠와 연관된 것이지.
해설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했듯이, (가)와 (나)는 모두 ㉠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만산 나월' 역시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자연물이라는 점에서 ㉡가 아닌 ㉠와 연관된 시어라고 봐야겠죠? 애초에 (나)는 '님'이 부재한 상황과는 무관한 부분이었습니다.

- ④ (다)의 '봄빛'은 ㉡와 연관된 시어로,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봄빛은 다 퍼졌는데 님은 왜 안 오냐고 했네.
해설	(다)부터는 본격적으로 ㉡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화자는 '봄빛'이 다 퍼지고 꽃들도 때를 알아 떴는데도 '님'은 오지 않는다며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러한 독해의 결과를 근거로 하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 ⑤ (라)의 '부용 당반'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자는 혼자 있지.
해설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있다면, ㉡와 같은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부용 당반'은 '남'에 대한 '깊은 시름'을 풀어 놓는 곳으로, 화자가 혼자 외롭게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지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4%	6%	75%	10%

18. (마)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벽사창(碧紗窓)이 어른어른커늘 님만 너저 풀썩 니러나 똑딱 나서 보니

→ 벽사창이 아른아른하길래 님인가 여겨서 벌떡 일어나 똑딱 나가 보니

님은 아니오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헌디 벽오동(碧梧桐) 저든 님히 봉황(鳳凰)이 느려안자 긴 부리를 휘어다가 두느래에 너허 두고 슬금슬쩍 깃 다듬는 그림자ㅣ로다

→ 님은 아니고 명월이 만정헌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내려 앉아 긴 부리를 휘어다가 두 날개에 넣어 두고 슬금슬쩍 깃 다듬는 그림자구나

모처로 밤일시만정 행여 낮이런들 늬 우일 번후여라

→ 모처럼 밤이니 만정이니 행여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구나

- 작자 미상 -

- 일종의 필수 고전시가에 속하는 '착각 모티프'를 활용한 작품입니다. 이는 (마)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떤 대상을 '님'으로 '착각'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①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감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마)는 청각, <보기>는 시각적 자극이 있네.
해설	(마)에서는 '바스락바스락'하는 '청각적 자극'이, <보기>의 초장에서는 '어른어른'하는 '시각적 자극'이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모두 '감각적 자극'이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네요.

②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님이 그리우니 당연히 즉각 반응하겠지.
해설	두 작품 모두 '님'으로 착각한 대상에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③ (마)의 중장과 <보기>의 중장에서는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이 확인되고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낙엽과 봉황으로 확인되었지.
해설	(마)에서는 착각을 일으킨 대상이 '낙엽'이었고, <보기>에서는 '봉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모

	두 중장에서 확인되고 있죠.
--	-----------------

④ (마)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기>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고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봉황을 비판한 적은 없는데?
해설	(마)의 중장에서 '낙엽'이라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란 혜경'이라는 공간에 굴러다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기>의 중장에서 '봉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은 도저히 허용하기 어렵죠? 그냥 '봉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비판을 허용할 만한 부분을 찾아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⑤ (마)의 중장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보기>의 중장에서는 타인의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라는 표현을 근거로 하면 '내면적 고통 토로'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고, '남 웃길 뻔했다'는 표현을 근거로 하면 '타인의 평가와 조소 의식'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고전시가 독해 : 겁먹지 않고, 현대시를 읽듯이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가볍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해석은 선지가 해 줄 겁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고전시가의 클리셰를 잘 활용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지문도 짧고 문제도 쉬웠으니,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죠?

1주차 DAY 2

문장 읽기 연습

반사회적 사회성이란 한편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끊임 없이 위협하고 반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이루어 살려는 인간의 성향을 말한다. (2004학년도 수능)

→ ‘반사회적 사회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반사회적’이면서도 ‘사회’와 관련된 ‘성’질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러한 생각을 한 뒤에 다시 정의를 천천히 읽어 보니, ‘분열 · 위협 · 반항’이라는 포인트로부터 ‘반사회적’을, ‘사회를 이루어 살려는’으로부터 ‘사회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반사회적 사회성’이라는 모순적인 개념의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했네요.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해 준 후 ‘쇼윈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A는 B이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A가 B라는 점에 집중해서 문장을 읽어줘야 합니다. 만약 정의가 길어서 파악이 힘들 경우, 주어(S)와 서술어(V)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하면 한결 쉬워집니다. 그 후 각종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수식을 챙겨주면 되는 것이죠. ‘텍스트’라는 개념의 정의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아래 서술된 사고 과정을 따라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 텍스트(S)는 인공물이다.(V) → 어떤 인공물이지? → 여기서 인공물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구나.

→ 아! 그러니까 텍스트(개념)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인공물이네(정의).

→ 이렇게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했으니, 이제 ‘쇼윈도’가 무엇인지 이해해 봅시다. 쇼윈도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라고 합니다. 쇼윈도의 정의에 우리가 위에서 이해했던 ‘텍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평가원은 앞에서 정의해 줬던 개념이 등장할 경우 그 개념을 뒤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보들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모이면 한 지문의 ‘화제’가 되기 때문에, 앞 부분에서 정의해주는 개념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텍스트’라는 개념을 숙지했기 때문에 ‘쇼윈도’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쇼윈도’가 ‘공간 텍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쇼윈도는 ‘공간과 관련된 인공물’일 것이고, 그 ‘쇼윈도’라는 ‘텍스트’의 목적은 문장에 써 있는 ‘소비 행위’일 것입니다.

→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공간/텍스트’라는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배웠듯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정의를 이해하는 데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공간/텍스트’에서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렸다면, ‘쇼윈도’라는 것이 ‘공간’에 위치하며 ‘텍스트’의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정의를 훨씬 깊게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 다시 강조하지만, 평가원 지문의 개념들은 이렇게 서로 엮이고 부딪히며 한층 고차원적인 개념을 형성합니다. 그 개념들의 관계를 선지로 물어보면 어려운 내용 일치 문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문장들을 통해 더 공부해볼까요?

프레임(frame)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그런데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법을 ‘이중 프레임’,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칭한다.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이번에는 ‘프레임’의 정의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시 스스로 생각해 보고 사고 과정을 비교해봅시다.

→ 프레임은(S) 경계로서의 틀이다.(V) → 어떤 경계지? → 시각 매체에서 화면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구나! → 그 경계가 되는 틀이 프레임이네. ‘프레임(frame)’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와도 관련된 정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네.

→ 그런데 이렇게 프레임을 이해했더니, 뒤에 ‘이중 프레임’, ‘이차 프레임’의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 예시의 ‘텍스트’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프레임’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그와 관련된 ‘이차 프레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기법’을 ‘이중 프레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하는군요. 앞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서술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에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프레임’과 관련된 정의이지, 그것들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니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가적인 서술은 여러분의 사고력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같이 달려봅시다!

1주차 DAY 2

2011.06 [15~18] 과학 '사막의 형성 원인' ☆☆

1문단

- ① 모든 사막은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불모지일까?
② 사막 중에는 열대 사막도 있지만,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과 같이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③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① #화제 제시

물어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답을 화제로 잡아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불모지'가 '상식적인' 사막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물음을 바탕으로 지문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②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카테고리 나누기

'온대 사막'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던 '불모지'로서의 '사막'과는 조금 다르죠? 물음에 대한 답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온대 사막'이 이 지문의 흐름 속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열대 사막'은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불모지'를 의미한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온대'와 '열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그 차이가 더욱 확실하게 납득되겠죠? 이렇게 숨겨진 정의를 최대한 많이 찾아낼수록 선지 판단이 용이해진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나아가, 이때 '온대 사막'이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화제의 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 주시고, '고지대', '대륙의 내부'와 비슷한 말이 나오면 언제든지 주목할 준비를 하셔야 해요.

③ #정의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이처럼 '온대 사막'의 존재 때문에, '사막'을 단순히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불모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막'의 제대로 된 정의는 '연 강수량 250mm 이하인 지역'이었어요. 핵심 개념의 정의인 만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나아가 '저위도'와 '중위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다는 것도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고지대/대륙 내부'와 함께 '저위도/중위도'가 이 지문의 전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문장

- ② 사막 중에는 열대 사막도 있지만,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과 같이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물론 '사막'이라는 중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3번 문장도 중요하지만, '열대 사막'의 숨겨진 정의, '온대 사막'의 정의, '고지대/대륙 내부'라는 카테고리에 대한 반응 등 여러 가지 생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2번 문장을 하이라이트 문장으로 뽑아보았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문이 짧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게 나올 때는 '해야 할 생각'을 적재적소에 해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2문단

- ①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② 북회귀선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열대 사막은 이러한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① #화제 제시 #재진술

'저위도의 사막'입니다. 여기서 '저위도'라는 말에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체크한 '화제의 틀'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깐요. 이는 '북회귀선·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대기 대순환'에 의해 만들어진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사막'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면 덥고 건조한 기후가 '반영구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이곳이 '사막'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자연스럽게 이 지문이 '사막의 형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화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상태에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② #재진술 #화제의 흐름

'저위도' 중 '북회귀선'에 위치한 '열대 사막'들은 이러한 '대기 대순환'으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열대 사막'을 보자마자 '불모지'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해요. 나아가 '저위도'의 사막들보다는 '중위도'의 사막들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면 완벽하겠습니다. 이 지문의 흐름에 따르면 '저위도=북회귀선/남회귀선=대기 대순환=열대 사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저위도'와 함께 '화제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중위도'는 이 지문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 '온대 사막'과 관련 있을 것이니깐요. 이를 기다리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 ①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저위도'라는 말을 보자마자 '화제의 틀'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정보는 1문단에서 제시한 틀을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3문단

- ①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솔트트레이크 사막과 중국 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은 이와 다르다. ② 그레이트솔트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습윤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형성되었다. ③ 이는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넘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수분을 잃게 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④ 한편,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양과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 ⑤ 대륙 내부로의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공기 중의 수분 손실도 사막 형성의 한 원인인 것이다. ⑥ 이와 같이 사막은 대기



대순환,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① #재진술

이번엔 ‘중위도’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1문단의 ‘화제의 틀’에 맞춰 정보가 제시되는 모습이에요. ‘저위도=북회귀선/남회귀선=대기 대순환=열대 사막’처럼 ‘중위도’와 관련된 정보들을 재진술할 준비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②~③ #정의 제시 #재진술

먼저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입니다. 이는 어떠한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습윤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해요. ‘사막’은 연 강수량이 일정 수치 이하인 곳으로, ‘습윤한 공기’가 적은 곳이라 할 수 있는데 ‘산맥’이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죠. 3번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분’을 가진 공기가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그 ‘수분’을 잃고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요. ‘수분’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발한다는 당연한 상식으로부터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네요.

한편, 여기서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이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반대쪽에 있다는 것으로부터 ‘고지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금 애매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온대 사막’이 ‘고지대/대륙 내부’에 있다는 것은 중요한 ‘화제의 틀’ 중 하나였으니까요. 뒤에서 ‘고지대’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산맥’이라는 말로부터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고지대=온대 사막’과 같은 재진술을 체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④~⑤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재진술

다음은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이 사막 역시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양’과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 오는 ‘습윤한 공기’의 수분 이동이 차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의 상황과 같으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륙 내부’라는 카테고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지대’와 함께 ‘온대 사막’의 위치로 제시된 부분이었으니, ‘타클라마칸 사막’도 ‘온대 사막’인 것이죠!

이렇게 ‘대륙 내부’에 위치하면 거기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수분 손실’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막’을 형성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분 손실’이라는 일관된 원인이 ‘온대 사막’의 형성 원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지대’에 있어도, ‘대륙 내부’에 있어도 ‘수분 손실’이 ‘사막’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요.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⑥ #재진술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문장입니다. ‘대기 대순환’,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이 각각 ‘저위도’, ‘중위도+고지대’, ‘중위도+대륙 내부’로 읽혀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습윤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형성되었다.

‘산맥’이 사막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맥’이라는 단어로부터 ‘고지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1문단에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서 ‘화제의 틀’을 잘 잡아주었다면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로부터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온대 사막’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문단

①흥미로운 것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에서 열대 습윤 환경에서 서식하던 신제3기*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②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한때는 저지대의 습윤한 지역이었으며,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③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융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이 이론에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 ④과학자들은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뿐만 아니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古地磁氣)* 측정 결과를 통해, 이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 함께 융기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⑤따라서 티베트 고원에 인접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근원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 변동이 관련되어 있다.

* 신제3기: 신생대 제3기 후반.

* 고지자기: 과거 지구 자기장.

①~② #화제의 흐름 #재진술

이렇게 ‘열대 사막’과 ‘온대 사막’의 형성 원인을 다 설명해주고 끝나는 것 같더니,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인접해있으니 ‘건조’하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겠는데, 이곳에서 ‘열대 습윤 환경’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습윤 환경’이라면 ‘건조한 지역’이 될 리가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상한 일에 대한 설명을 위해, 과학자들은 ‘지각 변동’과 관련된 가설을 세웠다고 합니다. 원래 ‘습윤’한 ‘저지대’였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 ‘건조’한 ‘고원’(=고지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습윤/건조’와 ‘저지대/고원’이라는 비교 포인트를 인식하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③~⑤ #재진술

이렇게 발견한 ‘티베트 고원’의 생물 화석은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히말라야 산맥’의 융기 과정에 들어맞는 것인데,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을 보자마자 ‘타클라마칸 사막’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티베트 고원’은 ‘타클라마칸 사막’에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과 관련된 내용을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겠습니다. 이런 재진술이 자연스럽게 잡혀야 합니다.

나아가 과학자들은 ‘탄소 동위원소 분석’, ‘고지자기 측정’ 등을 통해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과 함께 융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근원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 변동’이 관련되어 있던 것이예요.

조금 더 깊게 읽어볼까요? 3문단에 따르면,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인한 ‘수분 손실’로 인해 만들어진 사막이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원인은 ‘수분 손실’이지만 ‘근원적’인 원인은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5번 문장에서 굳이 ‘근원



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문단에서는 '히말라야 산맥 형성 → 수분 손실 → 타클라마칸 사막 형성'이라는 흐름을 정확히 잡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내는 것이 중요했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따라서 티베트 고원에 인접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근원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 변동이 관련되어 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3문단의 정보를 끌고 올 생각을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원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장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5문단

①호주 대륙의 사막들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②약 5천만 년 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이번엔 '호주 대륙의 사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니 카테고리를 나눠 주시면 좋겠죠? 이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한 뒤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지각 변동'과 '저위도'는 모두 우리가 열심히 체크했던 정보들에 해당하거든요. 일단 '지각 변동'이 먼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 '히말라야 산맥의 이동'이라는 '지각 변동'이 '근원적' 원인이 되었는데, '호주 대륙의 사막'도 '지각 변동'이 '근원적' 원인이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아가 '지각 변동'의 결과로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저위도=북회귀선/남회귀선=대기 대순환=열대 사막'으로 재진술했던 기억을 떠올린다면, '호주 대륙의 사막'은 '대기 대순환'으로 인해 만들어진 '열대 사막'임을 추론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같은 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만 하는 지문이 있었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약 5천만 년 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각 변동'과 '저위도'라는 말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호주 대륙의 사막'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을 하는 지문이 많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19%	3%	74%	2%

15. 밑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④

① 지각 변동은 일부 사막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명시적 근거	4문단 5번 문장,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각 변동 중요했지.
해설	'지각 변동'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호주 대륙의 사막'이 형성되는 데 '근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 법계 지을 수 있겠네요.

② 타클라마칸 사막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온대 사막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타클라마칸 사막은 온대 사막이었지.
해설	'온대 사막=고지대/대륙 내부'라는 '화제의 틀'로부터, '대륙의 한가운데'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온대 사막'이라는 것은 미리 추론한 내용입니다.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문 그 어디에도 '타클라마칸 사막'이 '온대 사막'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런 선지를 얼마나 빨리 지우느냐가 국어 실력의 척도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③ 시에라네바다 산맥은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산맥이 수분 이동 차단했었지.
해설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온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해서 생성된 곳이었습니니다.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이니 가 법계 지을 수 있겠네요.

④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사막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위도에도 있었잖아.
해설	'열대 사막'은 '저위도'에, '온대 사막'은 '중위도'에 위치한다는 것은 1문단에서부터 제시한 '화제의 틀'이었습니니다. 대부분의 사막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은 '열대 사막'의 존재를 무시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발문에서 묻는 것처럼 '밑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네요. 지문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설명은 나온 적이 없으니깐요.

- ⑤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지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양과 차단된 대륙 한가운데에서 사막이 되었지.
해설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과 차단되었다는 ‘지형적 특성’, 대륙 한가운데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형성되었다는 것, 너무나 완벽하게 납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3%	80%	2%	5%

16. [A]에서 사용된 ㉠의 검증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③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한때는 저지대의 습윤한 지역이었으며,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 ㉠은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에서 ‘열대 습윤 환경’의 화석이 나온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탄소 동위원소 분석 · 고지자기 측정 등을 했었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봅시다.

- ㄱ.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보강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탄소 동위원소 분석이랑 고지자기 측정이면 추가적인 증거네.
해설	단순히 ‘열대 습윤 환경’의 화석이 나왔다는 것 외에도, ‘탄소 동위원소 분석’ 및 ‘고지자기 측정’ 등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을 보강했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 ㄴ. 적용 가능한 새로운 현상을 찾아본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새로운 현상은 나온 적 없지.
해설	이 지문에서 ‘사막의 형성’ 외에 다른 현상이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겠네요.

- ㄷ. 경쟁 가설보다 설명력이 있는지 비교한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쟁 가설이 언제 나왔냐.
해설	㉠ 외에 다른 가설은 나온 적이 없죠? 애초에 발문을 보면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이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ㄹ. 기존 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존 지각 변동 이론 검토했지.
해설	역시 미리 생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7%	3%	21%	2%	7%

17. 윗글로 미루어 볼 때, ㉡의 과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은? ①

약 5천만 년 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미리 생각한 내용입니다. ‘저위도’에 위치한 뒤에 사막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대기 대순환’이 원인이라는 점을 추론했었어요.

이렇게 ‘미리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저위도’에 위치한 후에 사막의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임을 파악하고 2문단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제시된 곳은 5문단이지만, 2문단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필연적으로 느껴져야 해요.

- ① 대기 대순환
② 대륙의 크기
③ 산맥의 높이
④ 해수의 온도
⑤ 해양과의 거리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3%	3%	89%	3%

18. ㉢~㉤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④

- ① ㉢ :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
② ㉣ : 천체의 표면을 둘러싼 기체.
③ ㉤ : 습기가 많은 느낌이 있음.
④ ㉢ : 길러서 번식하게 함.
⑤ ㉤ : 솟아올라 높아짐.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화제의 틀'을 중심으로 한 재진술 체크, '같은 말 반복'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의 추론 등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요구한 지문이었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었다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니,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인지 잘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차 DAY 2

2020.09 [27~31] 사회(법) '점유' ☆☆☆☆☆

1문단

①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②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③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④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① #화제 제시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일까?'라고 물어보면서 시작됩니다. 물음으로 지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화제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문은 물건의 '사용자'와 '주인'이 같은지에 대한 답을 내려줄 것이에요. '사용'과 '주인'이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②~③ #정의 제시 #재진술 #비교/대조

이에 대한 답을 기다리며 읽는데, '점유'와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네요. 먼저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 및 '주인'이라는 말에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지배'한다는 건, 그 물건을 '사용'한다는 의미와 그 물건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유=사용or주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한편 '소유'의 경우,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언제든지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러한 행동은 '주인'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소유=주인이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의 물음에 개념들의 정의를 대입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해요.

④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런 이유 때문에,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 말의 뉘앙스는 '보통은 일치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도가 되겠죠? 앞에서 정리한 정의에 따르면, '점유자=사용자or주인'이고 '소유자=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주인'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일치하겠지만, '사용자'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점유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화제의 흐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 지문은 아마 '점유자≠소유자'인 경우에 주목할 것 같아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화제를 정확하게 잡아두고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문의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항상 일치하지는'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이 지문이 '점유자≠소유자'인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구요? 맞아요. 그



런데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을 뚫으려면 이 정도 수준의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해요.

2문단 (1)

①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②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③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④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①~④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비교/대조 #화제의 흐름
1문단에서 정의해주었던 '점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점유'입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직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네요. '물리적 지배=직접적 · 사실적으로 지배'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점유'의 정의를 끌어오셔야 해요!

또한 '간접점유'의 경우, 단어의 의미 그대로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간접'적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직접' 지배(=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네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모두 '점유'에 해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물리적 지배'를 하는 경우나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모두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지문의 화제인 '점유자≠소유자'를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일단 '직접점유'의 경우, '물리적 지배'를 하는 것이기에 '사용자'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직접점유자'는 단순한 '사용자'일 수도 있고, '주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간접점유'는 다른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예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1문단의 정의에 따라 '소유자=주인'이라는 뜻이니, '간접점유자'는 반드시 '소유자=주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접점유자'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직접점유자'가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간접점유'의 정의 자체가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 즉 '물리적 지배=직접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니까요. 그렇다면 '간접점유자'가 존재하는 상황은 '직접점유자', 즉 '사용하는 사람'과 '간접점유자', 즉 '주인'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간접점유'의 상황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 지문의 화제인 '점유자≠소유자'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지문은 '직접점유자=물건을 사용하는 사람'과 '간접점유자=그 물건의 주인'이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접점유'가 이 지문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는 '생각 심화'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어려운 생각들이지만,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정리해봅시다. 먼저 첫 문단의 '물음'에 주목하며 '화제'를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유', '소유', '직접점유', '간접점유'라는 개념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며,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을 '점유자≠소유자'라는 화제에 연결시켰습니다. 결국, '화제'를 생각하고 '정의'를 그 화제에 연결짓는다는 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주 기본적인 태도가 이러한 독해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모든 고난도 지문의 처리는 탄탄한 기본기에서 온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맙시다.

2문단 (2)

⑤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⑥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⑦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⑤ #카테고리 나누기

하나의 문단에서도 카테고리가 나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점유'라는 핵심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소유자 공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점유'가 '소유자를 공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⑥~⑦ #정의 제시 #사례-원리 연결 #화제의 흐름

'공시'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공시'라는 어휘의 의미 그대로죠? 그렇다면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곧 '소유자'임이 공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동산(動産)인 동·産(産)을 산 - 움직일 수 있는 물건(부동산)에 대한 사례를 들어주면서 이를 확실하게 해 주고 있네요. '피아노, 금반지, 가방'과 같은 동산들은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곧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예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고 했으니, 두 경우 모두 '소유권 공시'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지문의 핵심인 '간접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점유'를 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자'는 반드시 '직접점유자'를 필요로 하니까요. 이 경우 '소유권'을 가진다고 '공시'하는 사람도 여럿이 되기에, 여러모로 골치 아픈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정말 완벽하게 읽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문단 (1)

①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②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지금까지는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읽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뉘는 경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곧 지문의 흐름이니까요.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지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양도인 · 양수인' 정도의 어휘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떠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기에, 단순한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만이 '양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소유권 양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공시'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변화가 생겼으니, 그 변화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소유권 양도'라는 카테고리만 잘 잡았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②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 인도'를 통해 공시된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점유'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앞에서도 읽었듯이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를 바탕으로 '소유권 공시'가 일어나니, 그 '점유'를 '인도'하면 '소유권 양도 공시'라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앞에서 읽은 내용을 끌어오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우리는 앞 문단에서 '점유를 통한 소유권 공시'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시'라는 정보를 연결지었다면, 동산의 '소유권 양도'가 '점유 인도'를 통해 공시된다는 점을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앞의 정보를 끌어와 이해하는 과정, 지문 독해의 기본입니다.

3문단 (2)

③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④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⑤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⑥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⑦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⑧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③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의 흐름

계속해서 '소유권 양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라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은 '소유권 양도'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간접점유'를 한다는 건 양도인 혹은 제3자가 '직접점유'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소유권 양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문이 '간접점유'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 갑시다.

④~⑥ #사례 원리 연결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화제의 흐름

바로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A가 양도인, B가 양수인입니다. 양도 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A가 B에게 사흘 간 빌리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 B라는 양수인에게 '소유권 양도'가 된 것이니, '주인'은 B 일 것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카테고리의 내용대로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A가 사흘간 '직접점유'를 유지하며 '사용자'가 되지만, '주인=소유자'는 B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유'가 '개정'되었으니 '점유개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나아가, 결국 '점유개정'은 '점유자≠소유자'라는 화제의 상황이 그대로 제시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 양도' 카테고리에서도 '점유자≠소유자'라는 화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문단의 물음이 정말 강력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지요? 끝없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례도 확인해봅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하는 상황이라는 카테고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C가 '주인'인 상황에서 D에게 가방을 맡겨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D가 '직접점유', C가 '간접점유'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C가 E에게 자신의 '간접점유권', 즉 '반환청구권'을 그대로 '양도'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환/청구/권/양도'라고 부르는 것이네요. 이 경우 '양수인'인 E가 '간접점유'를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양도'가 일어난 것이네요.

이번에도 '점유자≠소유자'라는 화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사례를 바탕으로 각 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점유자≠소유자'라는 화제와 연결하는 것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는 상황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해 읽고 있는데, '간접점유'는 '점유자≠소유자'라는 상황을 낳는 것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점유자≠소유자'라는 상황을 강조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와 같은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문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화제인 '점유자≠소유자'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간접점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니까요.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입니다.

4문단

①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②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④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⑤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의 흐름

새로운 물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소유권 양도'라는 카테고리를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을 '점유자≠소유자'로 바꿔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양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소유'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점유자≠소유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③ #수식된 정의 제시 #선의취득

아무튼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것을 모른 채 '소유권 양도'의 과정이 진행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고 합니다. 원래 주인이 따로 있어도 그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상대방에게 속아 '선의'로 '취득'을 했다는 것이네요. 법에서 '선의'라는 단어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④ #예외 제시

그런데 '점유개정'을 가지고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법 지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예외'에 대한 내용이니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한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면 계속해서 원래 소유자를 숨긴 채 사기를 칠 수 있으니 그러하다 정도로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선의취득'의 예외로 '점유개정'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⑤ #재진술

이렇게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이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선의취득'이라는 상황 역시 '간접점유자'가 존재하는 상황, 즉 '점유자≠소유자'라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법 지문에서는 '예외'가 강력하게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점유개정'이 '선의취득'의 예외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5문단

①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②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③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④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① #수식된 정의 제시 #예외 제시

이번엔 '등기·등록'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이라는 그 정의를 정확히 체크하면서, '점유개정'처럼 이들도 '선의취득'의 예외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②~③ #재진술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공시'라는 단어를 보면 이들이 '등록·등기'를 거쳐야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물건임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앞에서 봤던 개념은 계속 끌어와야 해요.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 '고가'의 것들인데, 여기서 '선의취득'을 허용하면 좀 그렇다는 것이죠. 당연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동차나 집처럼 비싼 물건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남의 것이 되어 버린다면 매우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당황스러울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은 '납득'을 하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재진술 #비교/대조

이렇게 '선의취득'을 허용하는 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고가의 물건들은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요하니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동산들은 '소유자의 권리 보호'보다는 '거래 안전'이 중요하기에 '선의취득'이 가능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반대 추론하며 앞의 개념들과 '비교/대조'할 수 있어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점유자≠소유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첫 문단에 제시된 물음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문제로 넘어가봅시다.

생각 심화

이 지문의 첫 번째 물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물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독해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예외'에 대한 고찰이에요.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그 물건의 주인일 겁니다. 당장 이 해설을 쓰고 있는 컴퓨터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가 '주인'인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빌려 쓰는 것' 등과 같은, '사용'이 곧 '주인'을 의미하지 않는 '예외' 사항 속에서 지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의 내용이 가진 전체 자체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예외 사항'이라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간접점유'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쓰인 것이구요.

이 생각을 하고 나면,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 '선의취득'이라는 개념 역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점유 인도를 통한 소유권 양도 공시'에 대한 예외인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직접점유를 넘겨 주면 그것으로 소유권 양도 공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양도인이 진짜 주인이기도 하겠지만,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는 '양수인이 직접점유가 아닌 간접점유를 획득'한다는 '예외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다'라는 '예외 사항'이 되는 거죠!

거기에 '점유개정',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들'도 역시 선의취득의 '예외'로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평가원은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예외 상황, 특이한 상황에 주목한다는 점 (특히 법 지문에서는요.) 꼭 알아두시고, 지문을 읽다가 예외 상황이 보이면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두는 태도를 갖춰봅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4%	9%	22%	56%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 문장,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용자는 직접점유자이지.
해설	‘점유’의 정의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방을 사용하면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 그 중에서도 직접점유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직접점유의 정의를 체크하면서 ‘지배’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좀 더 쉽게 지을 수 있었겠죠?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게 화제지.
해설	‘점유자’와 ‘소유자’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둬야 해요.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점유 인도로 소유권 양도 공시해야 완료되지.
해설	가방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양도 계약 → 소유권 공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소유권 공시’는 가방 같은 일반적인 동산의 경우 ‘점유 인도’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점유 인도가 있어야 소유권 공시가 되고, 그렇게 해야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될 것이니 맞는 선지네요.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방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공시되지.
해설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 이건 ‘공시’의 정의였죠? 가방과 같은 일반적인 동산의 경우, 소유권 ‘공시’를 하는 방법은 바로 ‘점유’였습니다.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점유’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었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점유 인도로 공시해야 소유권이 이전되지.
해설	가방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양도 계약 → 소유권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계속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점유 이전’이라는 소유권 공시의 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 양도’가 공시된다고 했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5%	17%	12%	64%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A]는 ‘점유’를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로 나누어 소개하고, ‘점유’가 ‘소유권 공시’의 방법이라는 것까지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가볍게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물리적 지배를 하면 직접점유자이지.
해설	‘물리적 지배’를 하는 상태는 ‘직접점유’예요. ‘간접점유자’가 되려면 그냥 ‘반환청구권’만 가지면 되는 것이었죠.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간접점유도 점유이지.
해설	‘간접점유’ 역시 ‘점유’의 하나였고, ‘점유’는 ‘소유권 공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해요!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직접점유자가 소유권자이면 그럴 필요가 없지. 반대면 몰라도.
해설	‘직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그 물건의 ‘사용자’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주인’이기도 하다면, 해당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사람, 즉 ‘간접점유자’는 없어도 됩니다. 다만 지문 독해 과정에서 파악했듯이 ‘간접점유자’가 있으면 반드시 ‘직접점유자’도 있어야 하죠? 각 개념의 정의를 화제 중심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입니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간접점유자는 무조건 소유자이지.
해설	피아노를 '직접점유'하는 사람이 있는 없든, '간접점유자'는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애초에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 즉 '주인'이니까요. '사용자'와 '주인'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각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신의 소유권을 알려려면 점유를 해야지.
해설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소유권을 양도받아 자신이 소유자라는 것을 알려려면 반드시 '점유'의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모두 '점유'의 일종이니, 둘 중 하나를 갖추면 되겠죠. '점유=소유권 공시'라는 중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50%	25%	8%	13%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 크게 ㉠ / ㉡,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각각 '등록'과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 ㉢과 달리 ㉠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공시됐습니다. 나아가 ㉠과 달리 ㉡, ㉢은 '선의취득'이 불가능했죠? '거래 안전'보다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정도 생각하고 선지를 판단해봅시다.

- ㉠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등기·등록은 ㉢과 ㉢이지.
해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은 '등기·등록'의 정의였습니다. 이러한 '등기·등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것. 이걸 ㉢과 ㉢이었죠? ㉠은 '점유인도'를 통해 소유권 양도를 공시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에요.
해설	지문에서 '반대 추론'을 통해 미리 생각한 내용입니다. '선의취득'을 허용하면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으니, '선의취득'을 허용하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고 '거래 안전'을 경시한다는 식의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반대 추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평가원이 선지에 자주 활용하는 내용 중 하나니까요.

- ㉢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부동산이 왜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야?
해설	㉢은 점유로 공시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과를 틀리게 제시한 형태의 선지네요. 부동산도 충분히 '물리적 지배', 즉 '직접점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애초에 지문 속에서 왜 부동산은 '등기'의 대상인지 명확하게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비싸서 그런 것이겠죠.) 그 원인을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맞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 ㉣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명시적 근거	5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선의취득 안 되지.
해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선의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 '선의취득'의 예외라는 것, 확실하게 정리해놓은 부분이지요?

- ㉤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점유개정은 점유 인도인데, 점유 인도는 ㉠의 소유권 양도 공시 방법이지.
해설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과 ㉢이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점유개정'은 '점유 인도'의 한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간접점유권'을 제공하는 것

	이예요. 그런데 ㉔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만 ‘소유권 양도’가 공시됩니다. ‘점유개정’을 통해 ‘점유인도’를 받아도 ‘등기’라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 양도를 공시하는 건 불가능해요. ㉑과 ㉔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묻고 있네요.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15%	32%	24%	22%

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㉓

- 역시 중요한 건 <보기>를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것이겠지요?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 양도인인 ‘갑’과 양수인인 ‘을’ 사이에 ‘소유권 양도’ 계약이 맺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보관하다가 양수인에게 나중에 넘겨주는 합의를 했어요! 이는 ‘을’이라는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는 상황 중 ‘점유개정’의 상황이에요. 이 경우 ‘갑=양도인=직접점유자+사용자’, ‘을=양수인=간접점유자+주인’이라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을’은 양도인인 ‘갑’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고 해요. 이 말은 ‘선의취득’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었죠? 개념의 정의를 제대로 체크했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원래 주인이 아니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들의 계약 방식인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의 예외 상황이니까요! 따라서 사실상 세 번째 문장은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을’이 저런 노력을 했든 안 했든, ‘갑’과 ‘을’ 사이의 ‘선의취득’은 무조건 무효이니까요. 여기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을’이 또 ‘병’과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을’은 현재 ‘간접점유자’인데, 이 ‘반환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한 모습이에요. 즉, ‘반환청구권 양도’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선지를 봤더니, ‘갑’이 소유자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기>의 내용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천천히 이해해봅시다.

1) ‘갑’이 금반지 소유자인 경우

→ 사실 이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은 유효하고, ‘간접점유자+주인’인 ‘을’이 ‘병’에게 자신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깔끔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갑=직접점유자+사용자’, ‘병=간접점유자+주인’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을’은 최종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구요.

2)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이 경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해설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다시 정리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해요.

먼저 ‘갑’과 ‘을’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갑’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면 ‘선의취득’의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들의 계약은 ‘선의취득’의 예외 상황인 ‘점유개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서 ‘선의취득’은 무효이지만 ‘점유개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을’은 ‘소유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간접점유’를 하게 된 상태라는 것이죠! ‘소유’와 ‘점유’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지문의 핵심이기에, ‘을’이 ‘소유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점유’ 상태인 것은 맞다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의취득’(=소유권 취득에 관한 상황)과 ‘점유개정’(=점유 인도에 관한 상황)이라는 개념의 정의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지문 내용에 근거해서 정리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에 따르면, ‘을’과 ‘병’의 계약도 ‘선의취득’의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을’의 ‘선의취득’이 무효여서 소유자는 여전히 ‘갑’도 ‘을’도 아닌 다른 누군가(‘피렐’이라고 해봅시다.)인데, 소유자가 아닌 ‘을’이 ‘병’에게 소유권 양도를 한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이 ‘을’처럼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한 경우입니다. <보기>에서는 ‘병’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반환청구권 양도’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경우 정상적으로 소유권 양도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인 ‘피렐’으로부터 넘어온 것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갑=직접점유자+사용자’, ‘병=간접점유자+주인’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을’은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의 ‘소유권’은 ‘피렐’으로부터 넘어온 것이지만, ‘간접점유’는 ‘을’로부터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을’과 ‘병’은 ‘반환청구권 양도’, 즉 ‘점유 인도’의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을’은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병’에게 넘겨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다음으로 ‘병’이 양도인이 소유자임을 믿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선의취득’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을’과 ‘병’의 ‘선의취득’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피렐’이 여전히 ‘간접점유자+소유자’ 지위를 유지하지만, ‘을’의 ‘간접점유’는 ‘병’에게 인도되어 ‘병=간접점유자’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갑’은 여전히 ‘직접점유자+사용자’일 것이구요. 핵심은, ‘병’이 ‘선의취득’의 조건을 충족했든 하지 않았든 ‘간접점유’ 자체는 ‘을’로부터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간접점유’ 상태인 사람이 ‘피렐’과 ‘병’, 이렇게 두 명이 되는 복잡한 상황인 것이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지만, 어쨌든 <보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은 너무나 과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철저하게 지문의 내용만으로 정리할 수 있기는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음 내용을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1) 갑=금반지 소유자 (갑과 을 거래 전 → 갑과 을 거래 후 → 을과 병 거래 후)
 갑 : 직접점유자+사용자+주인 → 직접점유자+사용자, Not 주인 → 직접점유자+사용자, Not 주인
 을 : 아무것도 아님 → 간접점유자+주인(from 갑) → 아무것도 아님
 병 : 아무것도 아님 → 아무것도 아님 → 간접점유자(from 을)+주인

2)-① 갑+금반지 소유자 + 병 선의취득 조건 충족 (갑과 을 거래 전 → 갑과 을 거래 후 → 을과 병 거래 후)
 피램 : 간접점유자+주인 → 간접점유자+주인 → 간접점유자, Not 주인
 갑 : 직접점유자+사용자, Not 주인 → 직접점유자+사용자, Not 주인 → 직접점유자+사용자, Not 주인
 을 : 아무것도 아님 → 간접점유자, Not 주인 → 아무것도 아님
 병 : 아무것도 아님 → 아무것도 아님 → 간접점유자(from 을)+주인 (from 피램)

2)-② 갑+금반지 소유자 + 병 선의취득 조건 충족x (갑과 을 거래 전 → 갑과 을 거래 후 → 을과 병 거래 후)
 피램 : 간접점유자+주인 → 간접점유자+주인 → 간접점유자+주인
 갑 : 직접점유자+사용자, Not 주인 → 직접점유자+사용자, Not 주인 → 직접점유자+사용자, Not 주인
 을 : 아무것도 아님 → 간접점유자, Not 주인 → 아무것도 아님
 병 : 아무것도 아님 → 아무것도 아님 → 간접점유자(from 을), Not 주인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야 완벽한 <보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생각 심화'에 해당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지만, '생각의 힘 기르기'라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전체, <보기>
실전에서 판단 과정	갑이 금반지 소유자면 모든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지.
해설	1)의 상황입니다. '갑'이 진짜 '소유자'였다면, 모든 양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병'은 '간접점유자'가 되어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고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5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 판단 과정	점유개정도 점유 인도지.
해설	1)의 상황입니다. '갑'이 진짜 '소유자'였다면, '갑'과 '을'의 '점유개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갑'이 '물리적 지배' 상태를 유지하지만 '을'이 '간접점유자'가 되어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생각 심화

이때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에 주목할 수 있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점유개정'은 엄밀하게 말하면 '점유 인도'가 아닙니다. 원래 없던 '간접점유'가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요. 따라서 '점유개정'을 정의할 때 점유 인도로 '간주'한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니지만, 그렇게 치자는 것이죠.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신경 쓴 지문이죠?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 판단 과정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면 을은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지.
해설	2)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행히 답은 쉽게 나왔네요. '병'은 '선의취득'을 통해 소유자가 되기는 하지만, 이때의 '소유권'은 '을'이 아닌 '피램'(진짜 소유자)으로부터 양도된 것이에요. 법 지문의 핵심인 '예외'를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정리했다면 답을 고르는 것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 판단 과정	점유 자체는 넘어간 것이지.
해설	이번에도 2)의 상황입니다. '갑'이 진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을'에게는 애초에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의 대전제는 '소유'와 '점유'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간접점유'라는 '점유' 자체는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의취득'은 '소유권 취득'에 대한 내용인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이 '선의취득', 즉 '소유권 취득'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지, '을'에게 '간접점유'를 만들어 주는 '점유개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보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생각한 내용이죠? 결국 2)-①의 상황에서도, 2)-②의 상황에서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 '병'에게 이 '점유'를 '인도'하기는 한 것입니다. '소유권'은 '피램'에게서 왔겠지만요. 사실 지문의 정보에 따르면 '간접점유자=주인'이었기에, 갑자기 이렇게 '간접점유'와 '소유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선지로 출제하는 건 매우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정답 선지를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조금 오버한 선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보기>를 분석한 내용 그대로 선지화된 것이니, 해설을 이해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 판단 과정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확실하지.
해설	2)-①의 상황입니다. '병'이 '을'처럼 양도인이 소유자임을 믿고 충분히 주의했다면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을'과 '병'의 계약인 '반환청구권 양도'는 '선의취득'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물론 이때의 '소유권'은 '을'이 아닌 '피램'으로부터 받는 것이지만요!

생각 심화

이 문제가 요구한 건 결국 이 지문의 핵심인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선지에서 묻는 것'을 꼼꼼하게 따져 보면, 4번 선지와 달리 5번 선지에는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선지는 '점유 인도의 상황'이기에 선의취득이라는 '소유권 양도'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해당 부분, 즉 선의취득의 조건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이지만, 5번 선지는 '소유권 취득'이라는 선의취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보면 처음에 나온 한 줄의 물음.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일까?'에 대한 답변이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네요. 늘 그렇듯이 말이죠.

화제의 흐름에 대한 확실한 이해, 예외에 대한 인식, <보기> 정리하기,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해결할 수 있는 초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시험장에서야 어떻게든 3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배울 게 아주 많은 문제죠? 여러 번 복습하도록 합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8%	1%	2%	8%	1%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 ㉠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④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연결지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⑤ 예외 인식 :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는 언제나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확실하게 체크합시다.

지문 내용 총정리

문제의 답만 골라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모든 선지를 확실하게 지우는 건 과하게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그래도 배울 게 정말 많았어요. 첫 문단의 물음을 바탕으로 화제를 잡아내는 것, 개념의 정의를 그 화제에 붙여내는 것, 사례를 바탕으로 원리를 이해하는 것, 예외에 주목하는 것, <보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 이 외에도 자잘하게 언급한 것들 모두 고난도 지문 독해의 핵심이니, 여러 번 복습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1주차 DAY 2

2019.06 [39~42] 고전소설 '옹고집전' ☆☆

<보기> 독해

— <보 기> —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옹고집전’의 내용을 설명하는 <보기>입니다. ‘짚옹고집’이라는 가짜를 등장시켜 ‘참옹고집’에게 소외를 경험하게 하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나아가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까지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합니다. 또 다른 <보기>는 이본의 내용이니, 나중에 읽는 것이 좋겠죠?

지문 독해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옹고집’이라는 주인공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고약한 부자라는 것을 보니, <보기>에서 이야기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에는 좋은 인물임을 알 수 있겠죠? 나아가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깁작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소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냇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평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낯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흑흑 백을 가릴소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을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이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 선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두 ‘옹고집’은 누가 진짜인지 밝히기 위해 송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내’에 들어가자 ‘짚옹고집’은 만나는 사람마다 ‘참옹고집’이 할 말을 먼저 하는 모습이에요. ‘참옹고집’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가 막히고 얼척이 없겠죠. 이런 상황이면 진짜 말도 못하고 울음만 울 것 같습니다. 행인들 입장에서든 엄청 헛갈릴 수밖에 없겠죠? 누가 진짜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짚옹고집’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짚옹고집이 참옹고집인 척을 하고 있다.’라는 똑같은 이야기만 할 것이니, 일종의 ‘skip 가능 구간’으로 여기면서 빠르게 읽어야 해요. 특히 [A]로 묶인 부분들은 세세한 내용일치를 묻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조금 더 과감해도 됩니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제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중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기로 전곡을 과언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소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풀어 환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풀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냇돈 천 냇 돈을 풀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은 말이 낭자하더라.

(중략) 이후의 상황입니다. ‘짚옹고집’이 ‘반만 웃고’(이길 것을 알고 있었으니 오래도록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회포를 푸는 모습입니다. 아마 (중략) 이전에 했던 것처럼, ‘참옹고집’이 할 만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면서 신뢰를 얻은 것이겠죠?

여기에 ‘짚옹고집’은 재물과 곡식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문을 들은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은 구름 모이듯 모여들고 있구요. ‘참옹고집’ 입장에선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겠습니다. 어쨌든 <보기>에서 제시한 상황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걸식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환인구제한다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중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해로 찾아갈 제,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테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걸절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 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갈 마음 전혀 없다.”

이렇게 잔치를 벌여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있으니, ‘참옹고집’은 당연히 분한 마음이 들겠죠? 화가 잔뜩 난 채로 자신의 집으로 가려는 ‘참옹고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짚옹고집’은 도술을 통해 이러한 ‘참옹고집’의 모습을 확인한 뒤, ‘사환’에게 불쌍한 ‘참옹고집’을 데려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렇게 ‘사환’ 등이 ‘참옹고집’을 찾는데, ‘사환’들은 ‘영걸절에 배례하고 문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참옹고집’을 깎듯하게 모셨을 것인데, 그러한 버릇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모습을 본 ‘참옹고집’은 자신의 처지가 더욱 슬플 것입니다. 이렇게 ‘짚옹고집’의 명을 받고 온 ‘사환’들도 영걸절에 인사할 정도로 자신이 ‘옹고집’ 그 자체인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깐요. 이런 상황이니, ‘사환’들이 가자고 해도 자존심을 부리며 가지 않겠다는 ‘참옹고집’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으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확인구제하여 만 인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결산승 욕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하고, 좌상에 나앉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그렇게 ‘사환’들이 부축하여 ‘참옹고집’을 ‘짚옹고집’에게 데려가자, ‘짚옹고집’은 자신이 ‘참옹고집’ 행세를 한 이유를 설명하며 다시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부를 나누지 않고 욕심만 부리던 ‘옹고집’에게 소위를 경험하게 했음이 드러나네요.

이런 상황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 자빠지고, ‘옹고집’은 개과천선하여 인심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보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면서 독해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7%	67%	13%	4%

3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 ‘짚옹고집’이 ‘참옹고집’ 행세를 하는 모습과, 이를 보며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참옹고집’의 심정이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skip 가능 구간’으로 여기고 가볍게 넘어간 부분이었는데, 이렇게만 해도 정말 답을 고를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 판단 과정	송사 원인은 진짜 옹고집을 찾는 것이지.
해설	‘짚옹고집’의 대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었다면 오히려 헛갈릴 수 있는 선지입니다. 이 지문에서의 송사 원인은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를 가리는 것일 뿐, 금전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해요.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 판단 과정	행인들도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 알 수 없다 했지.
해설	행인들도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고, 그저 ‘상동’이라는 말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에 공감했던 기억이 있으니, ‘상반된 예측’은 허용하기 어렵겠네요.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 판단 과정	엄청 기막혀 했잖아.
해설	‘참옹고집’의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우는 심리에 공감했다면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나고 있으니깐요. 역시 정답 선지는 세세한 내용일치가 아닌 인물의 ‘심리’에서 제시되는 모습이에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skip 가능 구간’의 활용에 익숙해 지셔야 합니다!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 판단 과정	참옹고집은 아무 말도 못했지.
해설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비방하는 대화는커녕, 기가 막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러한 심리에 공감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네요.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외양 묘사가 있으면 놓쳤을 리가 없지.
해설	‘외양 묘사’는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나왔다면 놓쳤을 리가 없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	80%	6%	6%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①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마누라뿐만 아니라 다 속았잖아.
해설	‘참옹고집’이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자, 처자(아내와 자식) 권속(데리고 사는 식구) 및 상하 노복(노비) 모두 ‘참옹고집’을 ‘참옹고집’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누라’도 ‘서방님’이라고 부르며 고생했다고 말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겠죠.

②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 근. 찾아가서 내 집 망종 보고 죽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참옹고집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나지.
해설	‘참옹고집’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참옹고집’이 마음대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참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해석을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하고 죽장망헤로 찾아갈 제, ㉢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술로 뭐하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해설	‘참옹고집’은 도술을 이용하여 ‘참옹고집’이 집 근처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수상히 여기고 있다는 해석, 즉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해석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	--

④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집에 들어가기 전이었지.
해설	㉣은 ‘참옹고집’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을 뒷산’에서 서러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볍게 허용할 수 있네요.

⑤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 갈 마음 전혀 없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존심 부리는 거였지.
해설	‘사환들’에게 괜히 자존심을 부리며 집에 가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하는 것,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공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5%	5%	8%	6%	6%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① ‘내 좋은 형제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한 거라며.
해설	일단 송사 이전부터 ‘참옹고집’이 가족에게 소외되어 왔다는 근거도 없는 데다가, <보기>에서는 ‘참옹고집’의 등장이 ‘참옹고집’에게 소외를 경험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소외를 경험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전에는 소외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에, 여러모로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거지들을 박대한 건 가난한 이들 외면한 거 맞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겠죠? 이러한 행적을 보였기에 ‘참옹고집’은 소외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겠죠? <보기>에 따르면 ‘참옹고집’과 같은 부유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짚옹고집’이 대신 이행하는 모습입니다.

-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돈을 마음껏 주어도 될 만큼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네요.

-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짚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게 하는 거라며.
해설	<보기>에 따르면, ‘짚옹고집’으로 인해 ‘참옹고집’이 고생하는 것은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7%	15%	8%	56%	4%

42.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 먼저 <보기>의 내용부터 [B]와 비교하며 읽어봐야겠죠?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함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종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건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가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몸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몸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단 ‘짚옹고집’이 ‘도사’로 표현되어 있네요. 나아가 [B]와는 다르게 ‘참옹고집’이 ‘도사’에게 잘못을 비는 장면으로 표현된 모습입니다. 또한 [B]와 달리 ‘도사’가 ‘부적’을 써주고 있고,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진다는 차이점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선지화되었죠? 가볍게 해결해 봅시다.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해설	[B]에서는 ‘짚옹고집’이 자신의 어진 용심으로 살려준다고 했고, <보기>에서는 ‘도사’가 정상이 불쌍하니 살려 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각각 용서하는 이(짚옹고집)의 마음을, 용서받는 이(참옹고집)의 처지를 고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후생 이야기는 사회적 효용에, 처자 가여움은 가족의 피해에 대응되지.
해설	앞 문제의 <보기>에서도 언급했듯이,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으로 대변되는 다른 부자들의 사회적 책



	무를 연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침옹고집'은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 즉 사회적 효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이 문제의 <보기>에서는 '침옹고집'의 처자가 가엾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	--

- ③ '침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침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부모 박대와 모친 구박은 비인륜적 행위지.
해설	[B]에서는 '부모 박대'를, <보기>에서는 '모친'을 냉돌방에 '구박'했다는 것을 징계의 사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비인륜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 ④ '침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침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B]에서 침옹고집이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해설	[B]와는 달리, <보기>에서는 '침옹고집'이 용서를 비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체크했습니다. 일단 [B]에는 '침옹고집'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어요. 나아가 <보기>에서도 '침옹고집'이 용서를 구하자 '도사'라는 인물이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를 근거로 하면 인물의 발화가 '침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라는 것도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모로 틀린 선지였네요.

- ⑤ '침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신이하지.
해설	미리 생각한 차이점과 관련된 선지네요. '허수아비'로 변하는 것과 '홀연' 사라지는 것 모두 아주 신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③ skip 가능 구간 : 인물의 똑같은 내면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거나, 뻔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구간은 조금 빠르게 스캔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보기>를 통해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공감'이라는 포인트에 맞춰 지문을 이해하며, 'skip 가능 구간'을 활용하며 완급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소설 독해 태도가 모두 이용된 지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1주차 DAY 2

2010.06 [13~16] 현대시 '발열 / 거문고 / 대설주의보' ☆☆☆

<보기> 확인

<보 기>

김 선생님 :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나) 시인 '거문고'는 일제강점기 때의 현실을 비판한 시이고, (다) 시인 '대설주의보'는 군사정권 시기의 현실을 비판하는 시라는 내용이에요. 주제와 시대적 배경까지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머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敎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A]

[B]

[C]

- 정지용, 「발열(發熱)」 -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밤'에 아픈 '애'를 돌보는 상황입니다. 화자는 그 '애'를 보면서 중얼거리고 있어요. 아픈 '애'가 빨리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겠죠? 이 정도의 큰 주제만 잡아놓고 넘어가봅시다.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쪼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돌 곳 품돌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D]

- 김영랑, 「거문고」 -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검은 벽'이라는 곳에 기댄 채로 2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린은 울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기린'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린도 아니고 '나의 기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린은 결국 나와 비슷한 존재.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A의 B'같은 은유적 표현이 나오면 'A=B'로 생각해서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튼 그 기린이 영영 울지도 못하는 등 부정적 상황에서 외롭고 슬픈 화자의 모습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더 좋겠죠?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배우며
붉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판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덩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판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E]

- 최승호, 「대설주의보」 -

이 시는 <보기>를 통해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겠죠? 제설차도 안 오고, 몸을 숨겨야 하고, '솔개'가 도사리는 이 부정적 상황은 모두 군사정권 시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서 이야기한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6%	13%	4%	69%

13.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에는 동일한 시행이 없는데?
해설	일단 (나)에는 ‘동일한’ 시행이 없죠? 동일하려면 아예 똑같아야 해요. 또한 (가)에서는 ‘나는 중얼거리다’라는 말이 반복되고는 있지만, 다른 시행이 아니라 하나의 시행 속에서 제시되었으니 ‘시행의 반복’으로 보기는 어렵겠어요.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에 명사로 끝맺은 시행은 하나밖에 없는데 반복은 아니지.
해설	(가)에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 [C] 부분의 ‘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근거가 있으니 ‘반복’을 허용하기는 어렵겠네요. 한편, (다)에는 ‘계엄령’이라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렇게 미시적인 내용은 답이 되기 어렵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랑 너무 어긋나는데?
해설	각각 ‘기린’, ‘굴뚝새’라는 의인화된 존재가 나오기는 하지만, ‘친근감’이라는 반응은 지문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도저히 허용하기 힘들죠?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와 (다)에서는 도치가 없는 것 같은데?
해설	(가)의 [A], [B]에서는 어순의 ‘도치’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와 (다)에서는 찾기 힘드네요.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라면 당연한 내용이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6%	16%	9%	59%

14.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유의 사항	·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독특한 문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독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 작품을 ‘영상시’로 제작하는 것인데, ‘유의 사항’을 보니 카메라가 ‘화자’의 시선 이동을 따른다고 합니다. 나아가 ㄱ~ㅅ의 내용은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허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네요.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장소, 시간 제시했고 뿌옇게 하면 분위기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
해설	[A] 부분에서 장소(처마가 있는 곳), 시간(밤)을 설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ㄱ을 통해 나타냈고, ㄴ을 통해 ‘더운 김이 등에 서리’는 모습과 그로 인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네요.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붉은색이 두드러지고 가쁜 호흡이면 아파 보이지.
해설	ㄷ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붉은 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이 있으면 ‘애’가 아픈 모습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근거가 충분하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③ 르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클로즈업하면 아픈 모습이 더 잘 보이겠지.
해설	‘애’를 클로즈업하면 아픈 모습이 더 잘 드러나겠조? 아픈 ‘애’의 모습을 보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탄적 어조 사용하면 간절한 심정 나타나지.
해설	‘영탄적 어조’가 있으면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 허용할 수 있겠네요. ‘아아!’라는 말에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카메라가 하늘로 가면 애의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
해설	이 문제에 제시된 계획서도 일종의 <보기>이므로, 선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카메라의 시선은 ‘화자’의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ㅂ처럼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기면, ‘애’가 아닌 ‘하늘’의 풍경이 나타나겠조.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애’의 상태를 보여 준다는 말은 도저히 허용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약 단순히 ㅅ을 보고서 ‘애’의 시선이 흐려지는 것이니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셨다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질 것과 함께, <보기> 및 그에 준하는 정보를 반드시 독해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주세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7%	15%	69%	4%

15.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기>에서 그렇다며.
해설	<보기>에 나타난,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과 강압 통치가 있던 시대 등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조?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난 극복 의지, 미래에 대한 전망은 주제와 무관하지.
해설	(나), (다)의 상황과 반응을 생각하면 충분히 허용되겠조. 의지라는 ‘반응’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상황’은 모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있으니, ‘의지’와 ‘전망’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기도 하겠조.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데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충분히 중의적이지.
해설	이걸 고른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중의적으로 해석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골랐을 것이에요. 일단 ‘울지를 못한다’는 슬퍼서 영영 우는 것과 기린이 우는 것, 즉 ‘개 짖는 소리’, ‘고양이 울음 소리’ 등 동물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내리는’은 눈이 내리는 것과 눈보라가 ‘명령’을 내리는 것.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나요? 가장 좋은 건 경험을 통해 이런 부분에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3



번 선지를 보자마자 위의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이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평가원이 3번 선지를 틀린 선지, 즉 3번 문제의 정답 선지로 출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평가원은 중의적 표현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시의 객관적인 내용만을 따졌을 때 말이 되는 식으로, 본인의 논리에 따라 중의적 표현을 찾아내서 이의제기를 걸었다면? 그렇다면 평가원은 어쩔 수 없이 전원 정답 처리를 해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중의적 표현'처럼 감상자의 해석에 따라 충분히 허용 가능한 내용이 선지로 나올 땐 대부분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겠어도 일단 허용한 다음 다른 선지를 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잔 노인(老人)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굴뚝새를 딱히 외면하지는 않는데?
해설	일단 '기린'의 경우, '그 가슴을 통 흔들'었던 '노인'이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은 이후로 잊혀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잊혀졌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이로부터 '외면당한 존재'라는 말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굴뚝새'의 경우,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했다는 것을 허용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서운 현실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뿐이니 까요. 애초에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시어가 존재하지도 않구요. 허용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 이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술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쪼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술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린과 굴뚝새가 무서워하는 것이니까 허용되지.
해설	'이리떼, 잔나비떼, 술개'는 모두 '기린'과 '굴뚝새'가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들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의 주제를 생각해보면, 이들은 일반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부당한 권력'을 의미할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3%	10%	5%	76%

16.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 이야기가 없는데?
해설	[D]는 조금 애매하지만, [E]는 확실하게 무시무시한 '외부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근거가 있으니, '자아 성찰'이라는 해석을 허용하기는 어렵겠네요.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갈등 해소가 전혀 안 되는데?
해설	심리적 갈등이 해소된다는 말을 허용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E]에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없는데?
해설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나', '우리'와 같은 표현이 필요합니다. [E]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는 건 어렵지 않게 허용이 되겠네요.
--	--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내 기린인데 어떻게 거리감이야.
해설	지문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D]에서 '기린'이라는 대상은 '나'와 동일시되는 대상입니다. 'A의 B'라는 구조를 기억해야 해요. 이렇게 강력한 근거가 있으니, '거리감'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나아가 [E]에서도 '산짐승', '소나무' 등의 대상과 '일체감'이 나타나지는 않죠?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문 달았으니 은거가 허용되고, 눈보라 속 외딴집이면 생명이 위협받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
해설	일단 '은거'의 공간,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라는 말은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허용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문 아주 굳이 닫고', '외딴집'과 같은 명백한 근거도 존재하니까요. 중요한 건 '[D]에는 화자가 선택한'인데, 이게 앞에서 말했던 '내 기린' 덕에 허용이 되는 선지인 겁니다. '나의 기린'이란 은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는 자신과 기린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야기이지 기린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현대시 독해 연습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소리도 없이 조용한 밤입니다. '더운 김'이 등에 서리는 것처럼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 알고보니 '애'의 몸이 달아 오른 모습입니다. 아기들은 면역력이 약해 틈만 나면 열이 오르곤 하는데, 이 '애'도 열이 펄펄 나는 모습이에요.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敎徒)와도 같이.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애'는 너무나 아픈지 '가쁜 숨결'을 드내쉬고 있습니다. 열을 내리는 '주사'를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인 '나'는 '다신교도'가 된 것처럼 중얼거리고 있어요. '애'가 아픈 상황에서 '다신교도'처럼 중얼거린다는 건, 온갖 신들에게 제발 '애'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음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 정지용, 「발열(發熱)」 -

하지만 '애'는 계속 보채기만 합니다.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화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막막한 심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2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내 기린'이 울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주를 참고하면, '기린'이 태어났는데도 성인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의 울음을 울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로부터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겠죠? '성인'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는 건 현재의 상황이 그리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그런데 어떤 '노인'이 '기린'의 가슴을 통 흔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기린'을 울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았'을 것이라고 해요. 높이 올라갔으니, 땅 위에 있는 '외론 기린' 따위는 당연히 잊었겠죠. '기린'이 울어야 성인이 땅에 내려오고 이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가지만 합니다.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쪼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돌 곳 품돌 곳 없어지다

화자는 지금 '기린'과 함께 '검은 벽'에 기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은 '들 이리떼', '잔나비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들 이리떼'와 '잔나비떼'들은 모두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기린'은 맘돌 곳도, 품돌 곳도 없을 것이예요.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김영랑, 「거문고」 -

밖은 난장판이기에,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나는데, '이 밤'도 '기린'은 울지를 못합니다. 성인이 빨리 내려와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한 화자의 감정이 잘 드러나네요.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눈이 엄청나게 내린 '백색의 산들'입니다. 이곳은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곳인데,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화자는 주목하는 '굴뚝새'의 처지 중심으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평평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이렇게 작은 '굴뚝새'는 열심히 '눈보라 속'을 헤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길 잃은 등산객을 찾을 수도 없게 하고, 외딴 마을의 길도 끊어 놓을 것처럼 눈이 평평 내리고 있어요. 이는 마치 '계엄령'을 내린 것처럼 무시무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굴뚝새'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술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결국 '굴뚝새'는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춥니다. '부리부리한 술개'라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오고 있으니,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몸을 숨기는 것이 상책이겠죠. 무섭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몸을 숨기며 후일을 도모하는 '굴뚝새'의 모습입니다.

길 잃고 굽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 최승호, 「대설주의보」 -

아무리 몸을 숨겼어도 밖은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무섭고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서 무력감 등의 감정을 느꼈다면 정말 훌륭하게 읽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현대시 독해 :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그리고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글입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오래된 지문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제 위주로 가볍게 읽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기본적인 원칙은 절대로 잊지 맙시다.

1주차 DAY 2

2023LEET [28~30] 인문 '법과 폭력의 관계' ☆☆☆☆

1문단

벤야민은 폭력이 모든 합법적 권력의 탄생과 구성 과정에 개입함을, 그리고 그것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제정하고 부과하며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함을 밝히고자 했다. 『폭력 비판을 위하여』에서 그는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 자연법론과 ㉡ 법실증주의의 입장 차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벤야민’의 주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장이 조금 길지만, 1문단의 첫 문장이기 때문에 끊어서 확실하게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폭력’이 모든 합법적 권력의 탄생과 구성 과정에 개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맞다면, 조금은 과격한 주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 납득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아가, ‘벤야민’은 ‘폭력’의 작동에 대해 밝히고자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식’부터 확인해봅시다. 무언가를 금지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건 당연한데, ‘벤야민’은 ‘폭력’이 ‘법’ 자체를 제정하고 부과하며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즉, ‘폭력’이 ‘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벤야민’이 후자를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지문은 ‘폭력과 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벤야민’은 ‘폭력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입장 차이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이라는 부분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해요. 첫 문단부터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준비를 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2문단

벤야민에 따르면, 고전적인 자연법론은 법 창출과 존속의 근거를 신이나 자연, 혹은 이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외부적인 실체의 권위로부터 구한다. 또한 합당한 자격을 부여받은 외적 실체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벤야민은 자연법론보다는 법실증주의가 폭력 비판의 가설적 토대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근본규범으로 전제된 헌법으로부터 법 효력의 근거를 도출하는 법실증주의는 법체계의 자기정초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법 제정 과정의 폭력을 읽어낼 단서를 제공해 주어, 폭력 보존의 계보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창출하고 존속하는 근거로 ‘형이상학적·외부적’인 실체의 권위를 든다고 해요. ‘고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라는 이름답게 종교적 색채가 강한 모습입니다. 서양 철학과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나아가 ‘자연법론’에서는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외적 실체의 ‘정당한 목적’, 즉 ‘법의 창출과 존속’이라는 것을 위해 사용되는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네요. 이때 ‘목적’이라는 말을 보고서 1문단에서의 카테고리가 떠올라야겠죠? 1문단에서는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제시되었는데, ‘자연법론’에서는 외적 실체를 근거로 행해지는 ‘법’이라는 ‘목적’은 정의롭기에, 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폭력’ 역시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문단의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가볍게 납득해주시면 되겠죠?

한편 ‘법실증주의’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합니다. ‘법’이라는 목적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만들어졌다면, 즉 ‘정의롭게’ 만들어졌다면 ‘폭력’을 ‘정당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재진술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어쨌든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 양상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둘의 공통점은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이 엮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의롭다면 수단도 정당하고, 수단이 정당하게 쓰일 만하다면 목적도 정의롭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목적이 정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자연법론’에서는 ‘외적 실체의 권위’를, ‘법실증주의’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들고 있는 것이네요. 이런 차이점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죠?

‘벤야민’은 이 중에서 ‘법실증주의’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실증주의’는 ‘헌법’이라는 근본규범의 개념으로부터 법 효력의 근거를 도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법실증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으로부터 ‘목적(법 효력)의 정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끌고 내려 오면,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바꿔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헌법’ 자체가 대부분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기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법체계의 자기정초적 성격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초’라는 것은 ‘기초를 만드는 것’ 정도의 의미로, 법체계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과정)을 강조하기에 그 속에서 ‘폭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더 잘 탐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연법론’에 따르면 법이 아닌 ‘외적 실체’를 가져와야 하는데, ‘법실증주의’에서는 철저히 ‘법체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벤야민’이 탐구하고자 한 것은 ‘법과 폭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하기에는 ‘법실증주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납득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3문단

그렇지만 벤야민은 법실증주의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자연법론과 공유한다고 보았다. 정당화된 수단이 목적의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보는 경우는 정당한 목적을 통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든, 목적과 수단의 상호지적 관계를 전제로 폭력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법의 관심은 이러저러한 목적 혹은 수단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



라 법의 폭력 자체를 수호하는 데 있다고 파악했다. 또한 법이 스스로 저지르는 폭력만을 정당한 '강제력'으로 상정하고 다른 모든 형태의 폭력적인 것들은 '폭력'으로 치부하는 문제에 관해 양편 모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아 왔음을 지적했다.

이렇게 '법실증주의'를 좋게 보는 것 같더니,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전제'의 측면에서 '자연법론'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과 '수단'이라는 말은 각각 '법 체계'와 '폭력'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 엮여 있다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공통점으로 생각해도 내용이었어요. '벤야민'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2번 문장은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여야 합니다. '정당화된 수단이 목적의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보는 것은 '법실증주의'의 주장이고, '정당한 목적을 통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연법론'의 주장일 것입니다. '벤야민'은 이러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상호지지적'으로 명명하네요. '목적'과 '수단'이 '상호'적으로 '지지'해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문 내용의 재진술이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된 정보들의 재진술이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벤야민'이 생각한 법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목적 혹은 수단을 평가'한다는 것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들의 재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벤야민'이 보기에 법은 '법 체계'라는 목적이 정의로운지, 혹은 '폭력'이라는 수단이 정당한지 등을 밝히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예요.

법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법의 폭력 자체의 수호'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 역시 1문단에서 제시한 '벤야민'의 주장을 재진술한 것에 불과하네요. 1문단에서 '벤야민'은 폭력이 '법 자체를 제정·부과·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과 '폭력'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니까요. 즉, '법의 폭력'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법'에는 '폭력'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벤야민'이 보기에 법은 스스로 저지르는 폭력, 즉 '법의 폭력'만을 정당하다고 보고 나머지 모든 폭력적인 것들은 '폭력'으로 치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벤야민'이 보기에는 법이 하는 것도 똑같이 '폭력'인데, 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모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벤야민'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4문단

벤야민은 자연법과 법실증주의가 감추어 온 법의 내재적 폭력성을 설명하기 위해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을 새롭게 개념화했다. 전자의 사례로 무정부적 위력이나 전쟁 등을, 후자의 사례로 행정제도와 경찰제도 등을 제시한 점에서 이들이 각각 근대 국가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에 대응하는 한정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정립적 폭력은 법 목적을 위한 강제력이 정당화된 폭력의 위치를 독점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여기서 폭력은 법 제정의 수단으로 복무하지만, 목적인 바가 법으로 정립되는 순간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구적 성격을 넘어서 힘 자체가 된다. 그렇기에 법과 폭력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계 또는 선후관계로 편입될 수 없다. 한편 법보존적 폭력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확인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로써 법의 규율 대상에 대한 구속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노력들이다. 법은 구속적인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보존되며, 그 보존을 통한 재확언이 다시금 법을 구속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법 정립과 법 보존의 이러한 순환 회로를 신화적 폭력이라 명명하면서 그것을 신적 폭력과 구별 짓는다. 신적 폭력은 법을 허물어뜨리는 순수하고 직접적인 폭력이다. 벤야민은 이것이 신화적 폭력의 순환 회로를 폭파하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게끔 하는 적극적 동력임을 주장한다.

'벤야민'의 관심은 '법의 폭력'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을 새롭게 개념화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비교/대조될 것이니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겠죠?

일단 2번 문장의 내용부터 이해해봅시다. 두 개념의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전자는 '법'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후자는 '법'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립'과 '보존'이라는 말은 각각 '입법'과 '행정'이라는 말로 대응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면 안 됩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행정입법' 지문을 참고해서 정리합시다.) '벤야민'이 제시한 각 개념의 예시를 보면 단순히 '입법'과 '행정'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무정부적 위력 / 전쟁', '행정제도 / 경찰제도'는 '입법', '행정'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즉, 기존의 '입법', '행정'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뜻인데, '벤야민'의 정확한 주장은 무엇일지 궁금해하면서 읽어봅시다.

먼저 '법정립적 폭력'은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강제력'이 '정당화된 폭력'의 위치를 독점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속, 벌금 등 국가의 '강제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결국 '정당화된 폭력'으로 취급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법'을 '정립'하기 위해, 혹은 '법'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강제력도 '폭력'이라는 점에서 '법정립적 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이때 '폭력'은 법 제정, 즉 '법정립'의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하지만 목적인 바(강제력=법의 폭력)가 법이 되는 순간 힘 자체가 된다고 합니다. '폭력'을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했던 '자연법론', '법실증주의'의 주장과 달리, '벤야민'이 보기에 '폭력'은 '법의 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5번 문장을 읽어봅시다. '벤야민'이 보기에 '법'과 '폭력'의 관계는 '목적·수단' 혹은 '선후관계'가 아니라고 해요. '법의 폭력'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과 '폭력'은 누가 목적이고 누가 먼저 등장하는 것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과 '폭력'이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는 1문단에서도 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문단, 첫 문장에서부터 '벤야민'은 '폭력'이 '법'의 모든 과정에서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이 '법'과 사실상 같은 말임을 주장한 적이 있던 것입니다. 첫 문단에 제시된 대전제는 지문 전체를 구속한다는 것,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은 '법보존적 폭력'입니다. 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법'을 '보존'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노력이라고 해요. '폭력' 그 자체가 된 '법'

을 ‘정립’했으면 그 법을 확인·적용하며 ‘법의 폭력’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을 유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통해 ‘법’은 구속력을 가진 ‘폭력’의 일종으로 ‘보존’되고, 그 ‘보존’을 통해 ‘법의 폭력’이 가진 구속력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보존적 폭력’에 대해 설명하는 6번 문장과 7번 문장은 사실상 같은 말로 재진술되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벤야민’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법 정립’과 ‘법 보존’이 ‘순환 회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 법을 ‘정립’한 후에는 그 법을 ‘보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법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를 ‘순환 회로’로 부르는 모습이에요. 결국 다 같은 말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벤야민’은 이러한 ‘순환 회로’를 바탕으로 한 ‘법의 폭력’을 ‘신화적 폭력’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왜 ‘신화’인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같은 말의 반복으로 강조했던 ‘법의 폭력’을 곧 ‘신화적 폭력’이라고 한다는 것만 제대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이는 ‘신적 폭력’이라는 것과 구별된다고 하는데, ‘신적 폭력’은 무엇일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신적 폭력’은 법, 즉 ‘신화적 폭력’을 허물어뜨리는 순수하고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합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순환 회로’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화적 폭력’과 구별되는 것이네요. 이렇게 ‘기존의 질서’에 해당하는 ‘신화적 폭력’의 ‘순환 회로’를 폭파할 수 있다면,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벤야민’이 하고 싶었던 말은 ‘법의 폭력’, 즉 ‘신화적 폭력’의 ‘정립-보존-정립-...’이라는 ‘순환 회로’를 폭파해야 한다는 것이었네요.

5문단

출간 당시엔 크게 주목받지 못한 『폭력 비판을 위하여』가 반세기 넘게 지나 법과 폭력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데리다의 비판적 독해가 주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데리다는 『법의 힘』에서 합법화된 폭력을 소급적으로 정립하는 법의 발화수반적 힘을 분석했다. 그는 법 언어 행위를 통해 적법한 권력과 부정의한 폭력 사이의 경계가 비로소 그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보존적 폭력은 법정립적 폭력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립은 자기보존적인 반복에 대한 요구를 내포하며, 자신이 정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재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는 법을 정립하고 보존하는 신화적 폭력과 법을 허물어뜨리는 신적 폭력이 뚜렷이 구분될 수 없으며, 만일 후자를 벤야민이 지지했던 방식으로 이해할 경우 자칫 메시아주의*로 귀결되거나 전체주의에 복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 메시아주의: 세상이 사탄의 힘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탄을 물리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신앙.

이렇게 ‘벤야민’이 ‘법과 폭력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이는 ‘데리다’가 비판적 독해를 하기 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데리다’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비판적 독해’라는 말로부터 ‘데리다’의 주장에는 ‘벤야민’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데리다’는 자신의 책에서 ‘법의 발화수반적 힘’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합법화된 폭력’, 즉 ‘법’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화’에 ‘수반’되는 것으로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구체화시킨 것이죠. 이는 3번 문장에서 ‘법 언어 행위’라는 말을 통해 재진술되는데, 쉽게 말해서 ‘법’을 통해 ‘발화’하면 적법한 권력과 부정의한 폭력 사이의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네요. ‘벤야민’이 말한 것처럼 ‘법’이 ‘폭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폭력’이 ‘언어 행위’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합법화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벤야민’의 주장과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리다’가 보기에 ‘법보존적 폭력’은 이미 ‘법정립적 폭력’에 내재되어 있다고 해요. 5번 문장의 내용처럼 ‘정립’은 ‘보존’을 요구하고, ‘보존’을 위해서는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정립’과 ‘보존’의 관계를 ‘벤야민’처럼 단순한 ‘순환 회로’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같은 말’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입니다. 그는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을 구분했던 ‘벤야민’과 달리, 둘이 뚜렷이 구분될 수 없다고 했어요. ‘법의 폭력’이든 그것을 깨부수든 폭력이든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신적 폭력’을 ‘벤야민’이 지지한 방식대로 정당화할 경우, ‘메시아주의’나 ‘전체주의’라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마치 ‘신화적 폭력’(=법)이라는 기존의 질서를 깨부수는 것을 정당화하여 극단적인 사상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데리다’와 ‘벤야민’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사실상 앞에서 열심히 이해했던 ‘벤야민’의 주장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㉓

① 벤야민은 법정립적 폭력을 신화적 폭력에, 법보존적 폭력을 신적 폭력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벤야민’은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이 보여 주는 ‘순환 회로’를 ‘신화적 폭력’으로 명명하고, 이 ‘순환 회로’를 파괴할 수 있는 힘으로 ‘신적 폭력’을 제시했습니다. ‘벤야민’의 핵심 주장에 대해 묻고 있으니 쉽게 지워낼 수 있어야겠죠?

② 벤야민은 신적 폭력이 도래함으로써 법 정립과 법 보존의 순환 회로가 더 강고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 1번 선지와 같은 맥락이죠? ‘신적 폭력’은 ‘순환 회로’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강고하다’의 뜻을 물랐다고 해도, 이 정도의 단어는 ‘강’과 같은 단어의 뉘앙스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세고 튼튼하다.)

③ 벤야민은 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력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힘을 상실하여 소거된다고 주장한다.

- ‘벤야민’은 ‘법정립적 폭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단이었던 ‘폭력’이 법 제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힘 자체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법’과 ‘폭력’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게 ‘벤야민’의 주장이었죠?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④ 데리다는 폭력의 적법성이 법 언어 행위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 '데리다'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데리다'는 '법'이 가지고 있는 '발화 수반적 힘'을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법 언어 행위'가 '폭력의 적법성'에 대한 경계를 '소급적'으로 정립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소급'이라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는 뜻으로, '데리다'는 과거에 있었던 특정 폭력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를 '법 언어 행위'를 통해 거슬러 올라가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번 선지에서는 이를 '사후적'이라는 말로 재진술한 것이네요. 어휘력만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⑤ 데리다는 법을 보존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폭력들이 법정립적 폭력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 선지에서 말하는 '법을 보존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폭력들'이 곧 '법보존적 폭력'의 정의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법보존적 폭력'이 사실 '법정립적 폭력'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 '데리다'가 '벤야민'의 책을 '비판적 독해'하며 주장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벤야민'과 비교하며 확실하게 이해했던 기억이 있죠?

29. 윗글을 바탕으로 ㉠과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자연법론 / ㉡ 법실증주의

- '벤야민'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입장들입니다. 둘은 '법=목적', '폭력=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법'이라는 목적이 정의로운 이유를 각각 '외부적 실체'와 '절차적 정당성'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어요. '벤야민'은 이들의 공통점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이들이 법이 저지르는 폭력만을 '강제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채로 선지를 판단해보도록 해요.

① ㉠은 정당성 판단의 준거가 될 법적 권위를 법 바깥에서 구한다.

- '벤야민'에 따르면, '자연법론'에서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목적이 '외적 실체'로부터 합당한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이었죠. 발문을 보자마자 미리 생각한 내용이었어야 해요.

② ㉡은 수단의 절차적 정당화 여부에 따라 법의 폭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역시 미리 생각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벤야민'이 보기엔,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의 폭력성'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연법론'과의 차이점이기도 했죠?

③ ㉠과 ㉡은 목적이나 수단 중 어느 한쪽이 정당화되면 다른 쪽의 정당성도 보증된다고 전제한다.

- '벤야민'에 따르면,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모두 '법'이라는 목적과 '폭력'이라는 수단이 서로 정당하기 때문에 '법의 폭력성'이 정의롭다고 주장했어요. '벤야민'은 이를 '목적과 수단의 상호지지적 관계'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폭력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라고 이야기했구요. '벤야민'의 주장을 중심으로 지문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보다 ㉡이 법의 정립과 보존 과정에 내재된 폭력을 발견하는 데 더 유용하다.

- '법의 정립과 보존 과정에 내재된 폭력'은 곧 '벤야민'이 말한 '법의 폭력'입니다. '벤야민'은 이러한 폭력을 비판하기 위한 가설적 토대로 '법 체계의 자기정초적 성격'을 강조하는 '법실증주의'가 적절하다고 했어요. 물론 '법실증주의' 역시 3번 선지에서 말한 것과 같은 한계가 있었지만요.

⑤ ㉠과 달리 ㉡은 법적으로 승인된 폭력이 자신을 법 바깥의 폭력들과 차등화하는 문제에 주목한다.

- '자연법론'이든 '법실증주의'든, 법이 스스로 저지르는 '법의 폭력'만을 정당하다고 보면서 다른 폭력들과 차등화하는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 '벤야민'의 비판이었습니다. 역시 발문을 읽자마자 미리 생각한 내용이었죠?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 민주적 정치체제에서 법 제정 권력을 다룰 때, 논의 대상은 의회의 입법권으로 좁혀져야 한다. 정치적 자유의 행사를 통해 구성된 권력이 아닌 강제적 힘에 의해 정초된 법은 처음부터 불법이다. 따라서 국가법이 제정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폭력이 난입할 여지는 없다.

- 밑줄 친 두 부분을 바탕으로 '벤야민'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벤야민'은 '법정립적 폭력'에 대해 다루면서 '법정립'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법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아가 '법'이라는 것 안에 '폭력'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죠. A는 이 두 가지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B : 국가법은 불법체류자 등을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하는 동시에 바로 그 배제를 통해 규율 대상으로 포획한다. 이때 법과 폭력은 안과 바깥이 구분되지 않는 '포비우스의 띠' 안에서 무한히 순환한다. 우리는 더 나은, 혹은 덜 나쁜 법의 정립을 입법권의 자장 안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신화적 폭력을 넘어서 국가법 자체를 탈정립할 신적 폭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 '불법체류자'와 같은 포인트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법과 폭력은 순환'과 '신적 폭력을 지지'네요. 이는 '벤야민'이 주장한 내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B는 A와 달리 '벤야민'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① A는 법 정립 과정에 폭력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 데서, 벤야민과 관점을 같이한다.

- A가 '법 정립 과정'에 폭력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맞는데, 이는 '벤야민'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죠? <보기>를 정리하면서 미리 생각한 내용이기에 때문에 가볍게 지울 수 있겠습니다.

② A는 적법한 강제력과 적법하지 않은 폭력이 처음부터 다른 기원을 가진다고 주장한 데서, 벤야민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데리다와는 견해를 같이한다.

- 일단 A가 '적법한 강제력'과 '적법하지 않은 폭력'이 처음부터 다른 기원을 가진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강제적 힘에 의해 정초된 법'은 '처음부터 불법'이라고 했으니깐요. 이는 둘 사이가 다르다고 보는 것을 '문제'라고 하며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비판했던 '벤야민'과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데리다’의 경우, ‘적법한 강제력’과 ‘적법하지 않은(=부정의한) 폭력’에 대해 ‘법의 발화수반적 힘’이라는 개념과 엮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은 ‘발화수반적 힘’을 통해 합법화된 폭력을 ‘소급적’으로 정립합니다. 이는 그것이 적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중에야 결정한다는 것으로, 그들의 기원 자체는 같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원 자체는 ‘폭력’으로 같지만, ‘법 언어 행위’를 통해 ‘소급적·사후적’으로 적법성이 판단된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A는 ‘데리다’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야겠네요.

‘데리다’의 주장을 바탕으로 ‘폭력의 기원’에 대해 추론해야 하는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문에 적혀 있는 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능 수준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선지였어요. 이러한 추론적 사고과정에도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 ③ B는 법과 폭력의 순환 고리를 끊어낼 순수하고 직접적인 폭력을 지지한 데서, 벤야민과 입장을 같이한다.

- <보기>를 읽으면서 미리 생각한 내용 그 자체입니다. ‘신적 폭력을 지지’한다는 것은 B와 ‘벤야민’의 공통점이었어요.

- ④ B는 신적 폭력과 신화적 폭력의 구분을 전제한 데서, 벤야민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데리다와는 견해를 같이한다.

- B가 ‘신적 폭력’과 ‘신화적 폭력’의 구분을 전제한 것은 맞지만, 이는 ‘벤야민’의 주장과 같고 ‘데리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벤야민’과 ‘데리다’의 주장을 정확하게 비교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 ⑤ A와 B는 모두 법 정립 권력을 입법 권력에만 한정 지은 데서, 벤야민과 입장을 같이한다.

- 일단 A처럼 ‘법 정립 권력’을 ‘입법 권력’에만 한정 지은 것은 ‘벤야민’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지요? 나아가 B에서는 ‘법의 정립’을 ‘입법권의 자장’을 넘어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지, ‘입법 권력’에만 한정 지은 적이 없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